

행정의 기관차

3

서아전





Platform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

wap21.org

2026.3 차례 **차레** 민중민주당이 만드는 진보정치시사월간지

02 사설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를 앞당기는 서아전

특집1 _ 정세

트럼프, 이란전면전으로 3차세계대전 본격화의 특급전범이 되다

- 06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자랑찬연대기>
- 08 <간고한투쟁의위대한총화이고새로운여정의시작>
- 10 미·이스라엘 이란침공, 서아시아의 전면전 시작
- 12 동아시아 군사적긴장고조
- 14 스스로 악재를 불러온 트럼프정부
- 16 미 패악질에 세계경제위축 압박
- 18 <한>경제 압박하는 세계
- 20 내란청산과 검찰개혁의 기로
- 22 <반제전선의세계민중들과함께제국주의를타도하자>
- 24 <3차세계대전본격화행동을결단코분쇄하자>
- 26 아카이브

특집2 _ 당과 투쟁

서아시아전의 원흉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 48 [대변인실보도(성명) 651] 대이란침략전쟁에 미쳐날뛰는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 50 <대이란침략행동중단!미제국주의타도!>반제반파쇼 정당연설회
- 52 [공동성명] 대이란침략전쟁행동 자행하는 미제국주의 타도하자!
- 54 <이란침공강력규탄!서아시아전도발제국주의타도!> 1~4차긴급정당연설회
- 56 [대변인실보도(논평) 653] 미제국주의와 이스라엘시오니즘은 대이란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 58 사활적으로 들어야할 구호, <타도제국주의> 5~8차정당연설회
- 60 [대변인실보도(논평) 654] 대이란침략전쟁에 미쳐날뛰는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 62 이란침공은 제국주의멸망의 시작이 될것 9~12차정당연설회
- 64 트럼프는 정권종말을 앞당기는 길을 택했다 13~16차정당연설회

기획1 _ 정책

서아전등 4개전장 어느곳에서도 제국주의는 승리할수 없다

- 68 제국주의지배전략으로 얽힌 서아시아와 동아시아
- 70 동·서아시아반제전선의 성장
- 72 실패가 예고된 <2개전장동시승리>전략
- 74 핵무장으로 파탄난 <악의축>모략
- 76 반제무장투쟁세력으로의 전환
- 78 조선의 핵무력의 고도화를 다그친 <전략적인내>
- 80 중국의 1949미완과업과 2026이란전
- 82 교전중인 두국가관계 <한국완전봉괴>경고

기획2 _ 정치와 문화

전면적서아전과 3차세계대전본격화를 불러오는 이란전

- 86 <워머신> 학살기계
- 88 대이란침략으로 전면적서아전과 3차세계대전을 촉진하는 제국주의호전세력들

104 항쟁의 목소리 아카이브

106 씨네마떼끄 <액터독> 영화와 현실

108 이달의 사건 서아전·동아전

110 날출과 씨줄 서아전

112 플랫폼옴 서아전과 3차세계대전본격화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를 앞당기는 서아전

서아(아시아)가 불타고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은 즉시 반격했다. 미국이 시작한 이란전은 이란의 보복전으로 서아전으로 확대됐다. 페르시아만의 아랍 국가들이 이란의 미군기지등에 대한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고있다. 이스라엘도 이란의 강력한 보복공격에 의해 중요거점들이 초토화되고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군사적도발은 잔인했고 이란의 강력한 보복공격은 단호했다.

이란전이 전면화되고 미국이 깊숙이 그수렁에 빠지게 되면 중국은 대만전을 결행할것이다. 미국의 지상전이 시작되거나 나토가 전면적으로 개입하거나 서태평양의 미군무력이 대거 서아로 이동하게 돼, 이란정권이 매우 위험해지면 중국은 대만전을 결단하게 될것이다. 중국의 대만전은 곧바로 조선의 <한국>전으로 이어질것이다. 중국의 대만전과 조선의 <한국>전을 합치면 동아전이다. 이는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중국과 조선이 <전략적인내>정책을 접는 순간, 러시아도 같은입장을 취하며 우크라이나전을 동구(유럽)전으로 확대할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돈바스를 비롯한 노보로씨야에 전쟁범위를 한정할 이유가 없다.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않고 우크라이나전체와 구소연방지역을 러연방에 병합하려할것이다. 그리고 폴란드·체코등 중구와 핀란드·스웨덴등의 나토탈퇴를 압박하며 이지역을 완충지대로 만들려할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아전도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돼, 팔레스타인·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가 위협해질것이다.

서아에서 동아·동구를 거쳐 3차세계대전의 불길은 중미(아메리카)로 갈것이다. 동반구가 불타는데 서반구라고 안전할리 없다. 강력한 반미반제국가인 베네수엘라·쿠바가 미국과의 협상에 끌려갈리 만무하다. 중미는 3차세계대전의 마지막전장이 될것이다. 동아전은 단기전으로 끝나지만 서아전과 동구전은 중장기전이 될것이기때문에 중미전은 서아전·동구전과 궤를 같이 할것이다. 제국주의는 모든 전장에서 패배하며 치명적타격을 입게 될것이다. 제국주의는 스스로 저지른 불길속에서 타 죽어가고있다. 3차세계대전에서의 반제진영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



트럼프, 이란전면전으로 3차세계대전본격화의 특급전범이 되다

한결

2026.2.28 트럼프미정부와 네타냐후이스라엘시오니스트가 이란을 침공했다. 2.26 제네바에서의 이란협상이 잘되는 것처럼 상대를 방심하게 한후, 기습공격으로 하메네이와 군수뇌부를 폭격으로 살해했다. 미국·이스라엘은 이란의 여학교까지 폭격하는 민행을 저질렀다. 선전포고가 없고 협상중에 진행한 이 야만적인 공격에 온세계가 분노하고있다. 알리하메네이의 <순교>는 아야톨라가 이맘급으로 격상되고 모즈타바하메네이가 적통의 계승자가 돼 더욱 강경한 반제의 기치를 들게 만들었다.

이란의 보복공격으로 페르시아만주변의 아랍국가들이 불타고 있다. 이 부패한 친미국가들에 있는 미군기지들이 우선 공격을 받았고 그외 CIA거점들등이 파괴됐다. 미국의 국채와 첨단기술 주를 대거 소유하고있는 이들 아랍국가들을 미국이 제대로 보호하지못한다는 사실은 미국에게 전략적타격으로 되돌아오고있다. 여기에 이란의 호르무즈해협봉쇄조치로 인해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150달러를 향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받는 경제적충격파가 상당하다.



3.7 트럼프 미군전사자유해송환식참석

이란은 이스라엘의 주요 군사·정치·경제거점을 미사일·드론등으로 집중타격하고있다. 80개자탄을 실은 미사일등 이란의 공격이 매우 위력적이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이미 붕괴직전이다. 미군의 핵항모단도 이란의 미사일·드론공격을 피해 저멀리 후퇴한 상황이다. 공습만으로 정권이 붕괴된 역사가 없다. 그렇다고 이라크전·아프간전의 교훈을 생생히 기억하는 미국에게 전국이 험준하고 요새인 이란을 상대로 지상전은 불가능한 옵션이다. 쿠르드군을 앞세워 대리전으로 해보려하지만 쉽지않다. 이란전은 장기전으로 가고있다.

이란전에 미군의 발목이 잡히거나 이란정권이 위태로우면 중국은 대만전을 결행할것이다. 중국의 대만전은 조선의 <한국>전을 부르며, 서아(아시아)전이 동아전으로 확장되는 순간, 러시아의 동구(유럽)전이 시작될것이다. 서아전이 동아전·동구전으로 확대되면 결국 중미(아메리카)전으로 이어질것이다. 시오니스트초국적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략해 <평화인가면>을 벗어난 트럼프는 이제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를 앞당긴 전쟁원흉, 특급전범이 됐다.

〈전환적국면을열어놓은 자랑찬연대기〉

2.19~25 조선노동당9차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됐다. 2.19 김정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조선노동당8차대회이후 〈지난5년간은전당과전체민민이하나로군게몽쳐우리식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전환적국면을열어놓은자랑찬연대기〉라고 평가했다. 또 당8차대회가 소집될 당시에 대해 〈우리혁명의주객관적조건은말그대로자체를보존하기도힘들정도로엄혹〉했다고 하면서 〈5년전우리가혁명앞에조성된최악의난국을자력으로타개하고전진과발전의새시대를만드시열어나가겠다는신념과의지,각오〉를 갖고 당8차대회를 소집했다면 〈오늘은앞날에대한낙관과자신심에충만〉돼 당9차대회에 임하고있으며 〈이는실로커다란변화이고발전이며현단계에서의자부할만한성과〉라고 언급했다. 2.20~21 김정은위원장은 8기사업총화보고를 했다. 보고는 총결기간이룩된성과, 국가의 부강발전과인민들의복리를위하여, 대외관계의확대강화를위하여, 당건설과당사업의심화발전을위하여의 4개 체계로 진행됐다.

보고에서는 〈제일중대하고전략적인의의를가지는것은공화국의핵보유국지위를되돌릴수없게영구적으로다진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군사부문에서 국방발전계획에 대해 지상및수중발사형의대륙간탄도미사일종합체·인공지능무인공격종합체들·유사시적국의위성을공격하기위한특수자산·전자전무기체계들·더욱진화된정찰위성들이 포함될것이며 전략무기체계들과 특히 〈한국〉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주력타격수단들로 600mm방사포와 신형 240mm방사포체계들, 작전순출미사일종합체들을 연차별로 증강배치, 집초공격의 밀도와 지속성을 대폭제고할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외관계분야에서 김정은위원장은 〈가장적대적인실체인대한민국과상관할일이전혀없으며한국을동족이라는범주에서영원히배제할것〉을 확인했다. 이어 〈핵보유국의문전에서실행되는한국의부잡스러운행동이우리의안전환경을다쳐놓는행위로인정되는경우우리는임의의행동을개시할수있다〉·〈그행동의연장에서한국의완전붕괴가능성은배제될수없다〉고 경고했다. 대회는 마지막으로 〈인터내셔널가〉를 주악했다.

2.25밤 조선노동당9차대회기념열병식이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 김정은위원장은 연설에서 〈5년전바로여기서새로운개척을결의하며출발하였던우리가소기의목적을이루고오늘또다시계속되어야할성스러운투쟁의시작을마주하며이자리에섰다〉·〈인민군대는당에충실한혁명적무장력으로서, 국가방위의핵심으로서, 거창한전변의개척자로서, 인민의행복의창조자로서위대한우리시대의주역을계속믿음직하게감당해나가야한다〉며 국제적인 평화보장체계가 여지없이 붕괴되고 군사적폭력의 남용으로 도처에서 파괴와 살육이 그칠새 없는 현세계에서 국가와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굳건히 지키는것은 그무엇과도 나란히 놓을수 없는 최종대국사이며 그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우리무력의 본분이라고 밝히고 〈우리무력은모든상황에준비되어있다〉·〈우리군대는나라의주권과안전이익을침해하여가해지는어떤세력의군사적대행위에대해서도즉시에처절한보복공격을가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대회가 끝난 직후 2.27 김정은위원장은 주요간부들에게 신형저격수보총을 선물했다. 무기증서를 한명한명 직접 수여하고 지도간부들과 사격장에 나가 함께 저격무기사격을 했다. 앞서 2.18 김정은위원장은 600mm대구경방사포증정식에 참석해 연설에서 〈이무기는전술탄도미사일의정밀성과위력에방사포의연발사격기능을완벽하게결합시킨세계적으로가장위력한집초식초강력공격무기〉·〈정밀성과위력에서고정밀탄도미사일과의차이개념을사실상없엔무기〉·〈특수한공격즉전략적인사명수행에도적합화되어있고인공지능기술과복합유도체계가도입된것으로...현대전에서공인되어있는포병의역할과개념을완전히바꿔놓았다〉고 평가하면서 〈이무기체계의이용원칙과방식에대해서는말할수없다〉·〈하지만분명히이무기가사용된다면교전상대국의군사하부구조들과지휘체계는삼시에붕괴될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1
 - 2021.1 조선노동당8차대회 12 조선노동당8기4차전원회의
 - 2022.9.7-8 김정은위원장최고인민회의14기7차회의시정연설·핵무력법화
12 조선노동당8기6차전원회의 600㎜대구경방사포증정식
 - 2023.9 김정은위원장최고인민회의14기9차회의연설·핵무력헌법화
12 조선노동당8기9차전원회의<대한민국제1의주적>
 - 2024.1 김정은위원장최고인민회의14기10차회의시정연설<평정선언>
12 조선노동당8기11차전원회의
- 2025
 - 2025.9.21 김정은위원장최고인민회의14기13차회의연설
10 조선노동당80돌경축행사열병식<화성20형>공개
- 2026
 - 2026.2.13 김정은위원장해외군사작전전투위훈기념관건설사업현지도
 - 2.18 김정은위원장600㎜대구경방사포증정식참석·연설 김여정부부장담화
 - 2.19 조선노동당9차대회개막·김정은위원장개회사
 - 2.22 김정은위원장조선노동당총비서선거·추대 조선노동당규약개정
 - 2.23 조선노동당중앙위9기1차전원회의확대회의 김정은위원장조선노동당9차대회결론
 - 2.25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9기1차정치국회의 김정은위원장조선노동당9차대회기념열병식연설 김정은위원장조선노동당9차대회폐회사
 - 2.26 김정은위원장9기당중앙지도기관성원들과급수산태양궁전방문
 - 2.27 김정은위원장주요간부들신형저격수보총선물수여

〈간고한투쟁의위대한총화이고 새로운여정의시작〉

조선노동당9차대회 4일회의에서 조선노동당중앙지도기관선거를 진행하고 김정은국무위원장을 조선노동당총비서로 추대할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선거에 앞서 당중앙위원회위원과 후보위원 선거절차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김정은위원장을 당중앙위원으로 선거했다. 다음으로 조선노동당총비서선거와 관련한 제의가 진행됐다. 제의에서는 〈전란과폭제로뒤흔들리는이혼란스러운행성의한복판에서도끄떡없이오랜세월염원했던부흥의꿈과이상을마음껏설계하고창조할수있게한것은위대한사상과정치의힘, 위대한김정은동지의힘이었다〉고 밝혔다. 보도는 조선노동당9차대회는 전체대표자들과 전당의 당원들, 온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일치한 의사와 염원을 반영해 김정은위원장을 조선노동당총비서로 추대할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정은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총결기간이룩된제일중요한성과는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새흐름을개척한것〉이라며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것으로 전국의 시·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창한 혁명이 개시된것이라며 〈지방발전20×10정책〉을 언급했다. 중요한 성과로 〈사회주의적시책을확대실시한것〉을 꼽았다. 〈국가부강발전과인민들의복리를위하여〉에서는 전면적발전기에 견지해야할 중요요구와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의 각 부문별전망발표들, 그실현을 위한 과업들을 밝혔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전면적발전기에 견지해야할 중요요구로 〈사회주의건설전반에서일치한행동동일을보장하고강한기강을세우는것〉·〈남은도식과틀, 보수주의, 경험주의를부시고새것을부단히창조하고혁신해나가는것〉·〈사업을과학적으로예견성있게, 실리있게진행하고전문가적자질을중시하는것〉·〈생산과건설에대한지도방법, 지도방식을혁신하고일군들의지휘능력을높이는것〉·〈사상제일주의와인민대중제일주의를철저히구현하는것〉5가지를 꼽았다. 현대계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은 8기기간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성시킬수 있는 발전토대를 구축하고 인민생활을 실제적으로 개선하는것이라고 보고했다. 조선노동당규약개정에서는 새시대5대당건설노선의 정치건설·조직건설·사상건설·규율건설·작풍건설을 항구적인 당건설노선으로 명문화하고, 당중앙의 유일적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중앙집권적규율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당중앙지도기관들의 권능과 사업체계를 명백히 규제했다고 보도는 전했다.

2.19 개회선언, 2.20~21 8기사업총화보고, 2.22 당규약개정과 지도기관선거, 2.23 당중앙위9기1차전원회의확대회의가 진행됐다. 1차전원회의결정내용이 대회에 보고됐다. 김정은위원장이 대회의 결론을 발표했다. 결론에서 〈우리사회주의건설의전과정이3대혁명으로일관되어있고3대혁명노선을관철하는투쟁속에서전진하여왔다〉·〈전면적발전의거창한위업도3대혁명수행에대한당의영도를강화하고국가의지도적역할을높이는것과함께이사업에대중자신이주인답게참가할때라야만더빨리, 더실속있게실현될수있다〉고 꼽았다. 이어 〈사회주의전면적발전기를개척한지난5년간의투쟁이그러하였던것처럼새로시작되는5년간의투쟁도역시전적으로우리의주체적역량, 우리인민의위대한힘에의거할것〉·〈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이념을투쟁과전진의기치로변함없이높이들고나갈것〉이라며 인민의 이상과 숙망을 실현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가자고 호소했다고 보도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24 9기 전망목표와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토의해 결정서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절차로 공업·농업·경공업·문화·건설·군사·군수·법무·대외·당사업부문별연구및협의회를 진행했다. 2.25 당중앙위9기1차정치국회의에서는 2026사업계획이 반영된 결정서초안을 심의하고 종합된 의견들을 보충해 당중앙위9기1차전원회의결정서로 채택했다. 끝으로 김정은위원장이 폐회사를 했다. 대회에 앞서 2.16 화성지구4단계1만세대살림집준공식, 2.18 화성지구5단계건설착공식이 진행됐다. 김정은위원장은 착공식연설에서 〈이미현대도시의체모를갖춘화성구역을모든면에서완벽하게구리고그를본보기로수도권내의뒤떨어진지역들을개변하며살림집건설을계속힘있게내미는것과동시에문명의새경지를개척하면서부단히진보해나가는것이다음단계에우리가달성해야할수도건설목표〉라고 말했다.



2.22 조선로동당9차대회 김정은위원장총비서선거·추대

2021 | 2021.1 조선로동당8차대회<이민위천, 일십단결, 자력갱생>

- 2024.1.15 최고인민회의14기10차회의<지방발전20×10정책> 성천군·속천군·금야군·고산군·함주군·이천군·연탄군·은천군·은파군·정풍군·재령군·구장군·운산군·구성시·동신군·우시군·김형직군·경성군·어랑군·온천군·신포시바닷가양식사업소

2025 | 2025 <지방발전20×10정책> 강동군·신양군·낭림군·대관군·부령군·황주군·장연군·북청군·철원군·장강군·신포시·배천군·곡산군·세포군·김정숙군·길주군·정평군·개풍구역·영주군·용강군 강동군·구성시·용강군지방병원3곳 강동군·정평군·개풍구역종합봉사소3곳 낙원군바닷가양식사업소 은산종이공장

2026 | 2026.2.15 김정은위원장새별거리준공식참석·연설 2.16 김정은위원장화성지구4단계1만세대살림집준공식참석 2.18 김정은위원장화성지구5단계건설착공식연설 2.19 조선로동당9차대회개막·김정은위원장개회사 2.20~21 김정은위원장당9차대회<당중앙위8기사업총화보고> 2.22 김정은위원장조선로동당총비서선거·추대 조선로동당규약개정 2.23 조선로동당중앙위9기1차전원회의확대회의 김정은위원장조선로동당9차대회결론 2.24 부문별연구및협의회 2.25 조선로동당중앙위9기1차정치국회의 김정은위원장조선로동당9차대회폐회사 2.26 김정은위원장9기당중앙지도기관성원들과금수산태양궁전방문

미·이스라엘 이란침공, 서아시아의 전면전 시작

2.28 미·이스라엘이 <예방공격>이라는 침략명분을 내세워 각각 <장대한분노>·<포효하는사자>작전으로 이란을 침공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사무실·대통령궁·국방부건물·미사일기지등과 수도 테헤란·이스파한·쿰·카라지·케르만샤등 이란전역의 핵심지역에 대대적인 폭격이 이뤄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과 미국의 3차핵협상2일만에 벌어진 이란침공은 수개월전부터 계획됐으며 작전개시시점은 몇주전에 결정됐다고 전해졌다. 트럼프미대통령은 작전개시직후 <이번작전은임박한위협으로부터미국민을보호하기위한예방적조치>·<이란은절대핵무기를가질수없다>면서 이란민중들을 향해 <작전이끝나면여러분의정부를스스로장악하라>며 정권전복을 획책했다. 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도 <살인적인테러정권이전인류를위협할수있는핵무기무장해서는안된다>·<이번작전은이스라엘에대한실존적위협을제거하기위한것>·<트럼프대통령에게감사>라고 망발했다. 이번 이란침공에 대해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직면한 내부의 정치경제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국면전환용이라는 국제적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란정부는 즉각 미·이스라엘의 침공을 <국제법위반이자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을 통해 <범죄를저지르는미군과아동살해를자행하는시오니즘정권>에 맞선 <진정한약속4>작전개시를 발표했다. 이란은 이스라엘본토·이스라엘가자지구점령지·사우디(사우디아라비아)·UAE(아랍에미리트)·카타르·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등 서아시아(중동)내 미군기지·이스라엘군을 표적으로 대규모공습을 진행했다. 이번 침공으로 이란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미국은 참모총장·국방장관·혁명수비대사령관·국방위서기등 이란군최고위지휘부인사48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최고국가안보회의사무총장 라리자니는 <시오니즘범죄자들과파렴치한미국인들이그들의행동을후회하도록만들어주겠다>, 이란국회의장 갈리바프는 <그들은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 엄중경고했다. 민간인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2.28 이란 미나브지역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등175명이 사망했다. 3.6 이란 적신월사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침공이후 최소1332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이란전역의 174개도시가 공격을 받았다. 3.7 5500여개주거시설·14개보건소·65개학교등이 타격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이란혁명수비대는 3.1 성명에서 <역사상가장파괴적인공격이이뤄질것>이라 경고하고 미사일·드론공격을 6차례 전개했으며 탄도미사일4발로 <링컨>미해방모를 타격했다. 3.2 호르무즈해협을 폐쇄하며 <단1방울의석유도빠져나가지못할것>·<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려는모든선박을불태울것>을 선언했다. 또 이스라엘내주요전력·방산단지, 사우디미대사관·아람코동부정유시설, UAE·카타르에너지인프라, 오만등서아시아전역의 미군기지·외교시설에 전방위적보복타격을 가했다. <저항의축>들도 이스라엘공격재개를 선언하고 이란군에 합세했다. 레바논헤즈볼라·예멘안사르알라(후티군)는 즉시 미·이스라엘의 침공을 규탄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으며 이라크시아파무장단체도 이라크내미군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 3.6 쿠르드족이 이란으로 넘어가 지상전전개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3.7기준 이란전은 서아시아북부의 아제르바이잔과 지중해의 키프로스까지 전선이 확대됐다.

이란전발발초기 트럼프대통령은 이란전에 지상군투입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격이 4주간 이어질수 있다했지만 장기전수행은 미·이스라엘에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란전직전 케인미합참의장은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이 장기화될경우 방공미사일비축분부족과 미군인명피해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또 2025.6 이란·이스라엘간교전당시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대량소진해 현재 물량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이란은 미사일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드론을 위주로 대응하며 미·이스라엘의 미사일소모를 유도하고 있다. 3.7기준 군사력파전등 직·간접적으로 이란전에 참전한 국가는 20개국을 넘는다. 이는 2차세계대전이후 가장 광범위한 규모며 가장 빠른 속도다.



2.28 <장대한분노>작전개시발표, 미해군<블랙>구축함에서 <토마호크>미사일발사

- 1948
 - 1948.5 이스라엘건국·1차서아시아전
 - 1987 팔레스타인민중봉기<인티파다>
- 2007
 - 2007 가자지구하마스정부수립
- 2015
 - 2015 오바마정부-이란핵합의JCPOA
 - 2018 트럼프정부JCPOA핵합의파기선언
- 2025
 - 2023.10.7 하마스<알아크사홍수>작전
 - 2024.4 이란<진정한약속1>작전 10 이란<진정한약속2>작전
 - 2025.3 트럼프하메네이에서한 4 미이란핵협상
 - 6 미이스라엘작전이란24개지역공격 이란<진정한약속3>작전 12 미국가안보전략(NSS)2025
- 2026
 - 2026.1.3 트럼프베네수엘라마두로부부담치작전 1.23 미2026국방전략(NDS)발표 2.6 미이란1차핵협상 2.17 미이란2차핵협상
 - 2.26 미이란3차핵협상 2.28 미<장대한분노>작전 이스라엘<포효하는사자>작전 이란<진정한약속4>작전 하메네이폭살
 - 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호르무즈해협봉쇄> 미나브소재한여자초등학교폭격·175명학살
 - 3.1 트럼프<(이란전)최대4주정도걸릴것> 3.2 트럼프<(이란전)4~5주예상했지만더오래할능력있다>
 - 3.6 쿠르드이란지상작전돌입 트럼프<쿠르드참전찬성> 3.7 트럼프<쿠르드개입원치않는다>
 - 3.8 브렌트유119.5달러까지상승 이란전문가회의모즈타바하메네이최고지도자선출
 - 3.9 트럼프<(이란전)꽤빨리끝날것><당초4~5주보다크게앞서>
 - 3.10 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대변인성명<전쟁의끝을결정하는것은미국이아니라우리><미이스라엘공습이계속될경우이지역에서단 1L의석유수출도허용하지않겠다>



동아시아 군사적긴장고조

3.7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 중국중앙군사위주석으로서 14기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4차회의 중 해방군·무장경찰부대표단전체회의에 참석해 <군대는총을든곳으로, 당에다른마음을 품은 자가군에있어서는절대안된다>며 <부패분자가숨을곳이있으면안된다. 확고부동하게반부패투쟁을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당의 지도에 따라 군대를 정치적으로 바로 세우는 정치건군과 군현대화도 강조하면서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영도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군은 시진핑에게 군력을 집중하는 군사위주석책임제의 철저한 이행을 내세웠다. 앞서 1월말 장유사부주석·류전리연합참모부참모장등 군최고지휘부일부가 심각한 기율·법률위반혐의로 입건되면서 7인체제인 당중앙군사위에 시진핑주석·장성민부주석만 남게됐다.

대만국방부에 따르면 8일간의 <공중침묵>뒤 3.6~7 대만서남부공역에서 중군용기2대가 포착됐다. 앞서 대만국방부는 2.27~3.6 8일간 중군용기의 대만해협활동을 포착하지 못했다. 중군용기가 그동안 거의 매일 수십대씩 대만주변공역에서 활동한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공중침묵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됐다. 3.8 중은 1만t급055형대형구축함2척을 처음으로 대만해협담당 전구에 실전배치한 사실을 공개했다. 3.6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트럼프미대통령이 최근 호르무즈해협을 항행하는 유조선을 호위하기 위해 미해군투입가능성을 밝힌 가운데 일본정부는 미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경우의 대응책을 검토중이다.

2.18~19 경기오산기지에서 이륙한 주<한>미군F16전투기들이 동중국해 중국방공식별구역(KADIZ)근처까지 접근해 서해상에서 중전투기와 대치했다. 안규백국방장관은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로 항의했다. 이후 브런슨이 해당 상황을 자아낸 주<한>미군의 서해공중훈련과 관련해 <한국>에 사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국방부는 해당 보도내용일부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사과>가 기정사실로 되자 2.24 주<한>미군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대비태세를유지하는것에대해사과하지않는다>고 부인하면서 당시 <한국>군당국에 훈련계획을 사전통보했고 <한국>군내부보고체계문제로 <한국>국방장관등이 몰랐던것이 유감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즈음 브런슨은 진영승합참의장과 통화해 <한국>국방부가 추진하려는 9.19남북군사합의복원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 3.4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란문제가해결되면다음은북한>이라며 미를 향해 북침을 요청하고 12.3내란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을 동원한 참수작전등을 언급했다. 3.6 11개정당·시민단체는 안철수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민은 평화를 위해 전쟁과 불법계엄을 언제든 막아낼것, 미군기지가 있는곳들은 죄다 전쟁터가 되는것을 보면서 남일 같지않아 심란할수밖에 없다, 이런 어수선한 시국에 안철수가 불장난을 넘어 <한>반도를 전쟁으로 내모는 미친짓을 하고있다,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칼날에 맡기겠다는 치욕적인 사대주의발언이라고 분개했다.



中央军委战略规划办公室 王浩
搞好动态精准调控



3.8 중 대형구축함 함정동원해상훈련 실시

2026 • 2026.1 중국군최고지휘부일부기율법률위반혐의입건

• 2.13 통일부<<김여정부부장담화관련>>대책마련해즉시시행

• 2.18~19 중미전투기서해상대치

• 2.24 주<한>미군입장문<우리는대비태세를유지하는것에대해사과하지않는다>

• 2.27~3.6 중<공중침묵>

• 3.4 안철수<이란문제가해결되면다음은북한>

• 3.5 중14기전인대개막 2026중국방비사상최대치기록재정보고서제출

• 3.6 아사히신문일호르무즈해협미지원요청대응책검토보도 11개정당시민단체안철수규탄기자회견

• 3.7 시진핑<당에다른마음을품은자가군에있어서는절대안된다>

• 3.8 중대만해협담담전구대형구축함2척배치사실공개 왕이<<서아전관련>>일어나서는안될전쟁<<어느쪽에도이롭지않다>>

• 3.9~19 <프리덤실드>미<한>합동군사연습

스스로 악재를 불러온 트럼프정부

2.28 미·이스라엘의 이란침공으로 트럼프정부에 대한 부정여론과 반전여론이 높아지고있다. 전쟁선포권이 의회에 있는 조건에서 트럼프대통령은 <임박한위협에대한예방적자위권>을 주장하고있다. 트럼프 지지기반인 <MAGA>내부에서도 비난이 거세다. 미보수논객 칼슨은 <역겹고사악하다>고 비난했으며 그린공화당하원의원은 <MAGA는<아메리카퍼스트>이지<이스라엘퍼스트>가아니다.우리는전쟁제로에 투표했다.이번전쟁은우리가믿었던사람으로부터얻은최악의배신이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CNN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60%가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결정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39%가 미군이 군사력을 사용하기전에 충분한 외교적노력을 기울이지않았다고 평가했다. 미국내 워싱턴DC·백악관 앞·뉴욕타임스퀘어·로스앤젤레스·시카고등 주요도시에서 수천명의 시민이 모여 <전쟁은필요없다>·<이란에서손을떼라(Hands Off Iran)>·<제2의이라크전쟁을멈춰라>구호를 외치며 반전평화시위를 전개하고있다.

2.20 미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제한법을 근거로 한 트럼프의 관세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적인 관세권을 행사할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판결로 인해 전세계대상10%보편관세와 상대국관세율에 맞춰 보복관세를 매기던 국가별상호관세, 펜타닐관련 중국·캐나다·멕시코관세가 법적근거를 잃었다. 트럼프는 몇시간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판결을 우회할수 있다며 무역법122조를 통해 최대10%의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3.4 미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정부가 국제비상경제제한법을 근거로 부과했던 관세에 대해 환급을 명령했다. 이로인해 지난 1년간 거둬들인 관세수입 약1750억달러를 수입업자들에게 돌려줘야할 위기에 처했다. 현재 미국제무역법원에는 관세환급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소송이 1000건이상 접수돼있다.

<엡스타인파일>에서 <더이상나올자료가없다>는 트럼프정부의 주장과 달리 현재까지 계속 폭로가 이어지고있다. 3.5 미법무부는 엡스타인파일중 한여성이 1983당시 미성년자일때 엡스타인의 소개로 트럼프를 만났으며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FBI신문영상3건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1.30 공개된 약350만쪽이 <마지막대규모공개>라고 공언했으나 전문가들과 의회는 여전히 전체자료의 절반 이상이 베일에 싸여있다고 보고있다. 2.14 과거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배넌이 엡스타인과 프란치스코교황·EU등을 무너뜨릴것에 대해 이메일을 주고받는등 모의했다고 보도됐다. 여기에는 바티칸을 겨냥한 미디어공작과 유럽극우정당들에 대한 지원자금조달논의등 구체적내용까지 포함됐다.

이란전발발로 호르무즈해협봉쇄위기가 현실화되자 3.6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와 WIT(서부텍사스산원유), 뉴욕유가가 모두 배럴당90달러선을 돌파했다. WIT는 하루만에 12% 넘게 급등했으며 뉴욕유가는 주간기준으로 약36% 상승해 1983집계시작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했다. 유가급등은 주식시장하락세에도 영향을 미치고있다. 2월 미국내 일자리가 9만2000개 감소하고 실업률이 4.4%로 치솟았다. 월가는 유가폭등의 고물가와 고용쇼크의 경기침체가 동시에 닥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있다. 3.3 윌리엄스뉴욕연방준비은행총재는 <관세부담의대부분이미국기업과소비자에게가해진것으로추정된다>고 말했다. 3.3 11월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텍사스주 연방상원의원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에서 민주당의 유권자수가 공화당을 앞질렀다. 보도에 따르면 3.1 트럼프의 지지율은 39%로 핵심지지층이 붕괴되고있다. 트럼프가 11월중간선거의 최대 악재를 스스로 초래하고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있다.



미백악관앞 트럼프·엡스타인동상(영원한절친)

- 2025
 - 2025.11 트럼프엡스타인파일투명성법안서명
 - 12.19 엡스타인파일1차공개
- 2026
 - 2026.1.30 엡스타인파일2차공개
 - 2.10 미의회청문회러트닉엡스타인과2019까지관계지속시인
2.20 미대법원트럼프관세위법판결 2.28 미·이스라엘이란침공 호르무즈해협봉쇄
 - 3.4 미하원감독위법무장관에게<불필요한가림처리모두제거>취지로<엡스타인파일>관련소환장발부
3.5 뉴욕·오리건·애리조나·캘리포니아등24개주트럼프정부새무역관세위법국제무역법원소송
미법무부엡스타인파일미성년자였던당시트럼프에게성폭행당했다는여성의FBI면담요약본3건공개

미 패악질에 세계경제위축 압박

호르무즈해협봉쇄·사우디아라비아정유시설일시폐쇄 등 미·이스라엘의 이란침공후과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브렌트유가격이 1일 장외거래에서 개장과 동시에 최대13%까지 상승해 배럴당82달러를 넘어섰다. 79달러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유가가 거의 10%급등하면서 중동분쟁확대로 인한 경제적위험성이 부각됐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교역차질이 길어질수록 소비자들은 휘발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의 가격상승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커지며 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있는 상황에서 더욱 악화될것, 이러한 상황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지지율이 급락한 트럼프대통령에게 국내정치적역풍을 불러올수 있다고 지적했다.

3.6 국제유가가 하루에 12%이상 급등해 배럴당90달러를 넘어섰다. 원유수송경로가 경색되면서 산유국은 감소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쿠웨이트가 원유저장시설이 부족해지자 일부 유전의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라크도 1일150만배럴의 원유생산을 감축했다고 전했다. 알카타르에너지장관은 호르무즈해협봉쇄가 2~3주 지속될경우 유가가 배럴당150달러까지 올라 세계경제를 무너뜨릴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전쟁위험보험료는 최대12배까지 급등했다. 보험료는 해상물류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위험신호로 평가된다. 보험료상승은 운임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다시 에너지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다. 3.3 트럼프가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미해군이 호위하고,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업계는 미정부의 지원 적용범위나 세부사항이 불투명하다며 신뢰하지못하고있다.

이란침공은 트럼프의 정치적이외에도 중에너지전략압박을 위한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란은 중의 최대할인원유공급처이자 브릭스(BRICS)·상하이협력기구(SCO)의 핵심국가다. 중의 <1대1로>전략에서도 서아시아거점역할을 맡아온것으로 평가된다. 중은 이란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산원유의 최대수입국이다. 그러나 1월 미의 베네수엘라주권침해를 계기로 베네수엘라산 수입에 차질을 빚고있다. 서아시아분쟁격화에 따른 에너지공급차질이 본격화될시 1차충격은 아시아에 집중된다. 중·인도·<한>·일등 주요원유수입국이 밀집돼서다. 반면 페스코프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란전과 맞물려 러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EU(유럽연합)·ECB(유럽중앙은행) 등은 유럽내에서 달러중심세계금융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자 대외유동성방어망확대·디지털결제망내재화·역내자본시장통합등을 활용한 유로화확대에 나섰다. 우크라이나전발발직후 서방진영의 대러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통신망축출·외화보유액전면동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따랐다. 해당제재에 동참했던 유럽이 통화주권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회의를 느끼고 미의 정치적결단이나 제재에 의해 경제혈맥이 완전히 끊길수 있는 리스크를 인식한것이라는 설명이다.





3.9 미LA 셰브론주유소

2026 • 2026.2.28 미이스라엘이란침공

- 3.1 트럼프<모든목표가달성될때까지이란에대한군사작전을지속하겠다>
- 3.2 호르무즈해협봉쇄 사우디정유시설일시폐쇄
- 3.3 트럼프호르무즈해협항행유조선호위약속
- 3.5 미인도정유사에러원유구매30일간예외허용 외신이라크원유생산감축보도
- 3.6 국제유가배럴당90달러돌파 WSJ쿠웨이트원유생산감축보도
- 3.8 모건스탠리호르무즈해협봉쇄장기화시유가130달러상회가능성제기
왕이<전략적파트너로서중동국가들과협력해세계안보구상을이행할것>
- 3.9 <4차오일쇼크>가능성보도



〈한〉경제 압박하는 세계

디솜브레미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처리시기와 맞물려 방〈한〉했다. 앞서 1.26 트럼프대통령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처리지연등을 이유로 자동차등품 목관세재인상방침을 밝혔다. 이에 여야는 뒤늦게 입법을 추진했다. 2.9 대미투자특별위원회전체회의를 거쳐 2.12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뒤 3.9 대미투자특별법안(〈한〉미전략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3500억달러규모의 대미투자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것을 뼈대로 한다. 앞서 3.4 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장관은 국회에서 대미투자법처리를 촉구하며 〈미국이9일까지(대미투자법국회통과가)되는지상황을지켜보고있다〉고 언급했다.

같은날 쿠팡의 미현지투자사 그린옥스·알티미터가 〈한국〉정부의 쿠팡대응을 문제삼아 제기했던 미무역법301조청원을 철회했다. 이투자사들은 최근 몇주동안 미무역대표부(USTR)와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한국〉정부의 조치가 쿠팡과 같은 미기술기업에 위협이 된다는점이 강조됐다, 트럼프대통령과 그리어미무역대표부대표가 〈한국〉의 무역약속준수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공개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무효판결이후 트럼프행정부가 무역법301조를 앞세워 통상압박을 한층 심화했다. 무역법301조는 교역상대국의 차별적규제나 불공정무역관행이 자국상거래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경우 미무역대표부조사를 거쳐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부과등 광범위한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규정해 강력한 통상무기로 꼽힌다. 2.22 쿠팡의 미현지투자사들은 〈한국〉정부의 규제가 징벌적이라며 미무역대표부에 301조조사를 청원했고 2.23 미하원법사위가 쿠팡관련비공개조사를 진행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트럼프가 관세인상을 운운하며 대미투자이행을 압박하자마자 국민적 합의도 없이 국회가 기다렸다는듯이 법안을 논의하고 빠르게 처리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미〈한〉간 합의문서 어디에도 즉각적인 투자집행의무나 특정시점은 명시되지않았으며 투자규모 역시 연간상한만 있을뿐이라는 지적이다. 더해 법안 어디에도 이번 투자가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을 검증하는 절차는 없고 국내고용감소나 산업공동화, 핵심기술유출위험을 따져 묻는 조항은 전무해 졸속이라는 평가다. 35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우리가 부담하면서도 그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할 권한은 미가 쥐고있고 조선·반도체·에너지·AI(인공지능)등 〈한국〉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들이 법안의 명단에 오른것등도 크게 우려되고있다. 법안통과시 〈한국〉자본은 미국내공장건설·공급망재편에 고스란히 투입되고 자본과 생산, 고용은 미에 남고 〈한국〉경제는 껍데기만 남은 구조적수탈이 시작되는것이라는 반대의견도 따랐다.

호르무즈해협봉쇄속에 〈한국〉정유사의 서아시아(중동)산원유수입은 3.24 사실상 중단될것으로 확인됐다. 최악의경우 정유설비일부가 셋다운(가동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정유사는 전체원유의 69.1%를 서아시아에서 수입해왔다. 3.9현재 서아시아산원유를 실은 선박총17척이 〈한국〉으로 오고있고 7척은 호르무즈해협을 빠져나오지못해 멈춰있다. 정부는 우선 호르무즈해협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서아시아산원유를 들여올지 알아보고있으나 1일 원유수송능력이 500만배럴에 그치는데다 안부지역항만시설이 부족해 충분한 원유를 수송할수 없다. 북미·중남미원유수입의경우 해당지역원유는 경질유가 대부분이어서 중질유중심의 정제설비를 갖춘 〈한국〉정유사에는 적합하지않다. 3.9 이재명정부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유소의 휘발유·경유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재명대통령은 유류세인하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8 대미투자특별법안의결

- 2025
 - 2025.12.4 대미투자지원특별법반대국회기자회견
 - 2.12 여야<대미투자특별법>처리합의
 - 2.22 미현지쿠팡투자사들<한국>정부쿠팡규제관련무역법301조조사청원
 - 2.23 미하원법사위쿠팡관련비공개조사진행
 - 3.4 구윤철<미국이9일까지(대미투자법국회통과가)되는지상황을지켜보고있다>
 - 3.6 김정관-여한구방미
- 2026
 - 2026.1.26 트럼프관세재인상방침사사
 - 2.9 대미투자특위진제회의
 - 3.9 국회대미투자특별법만장일치통과 미현지쿠팡투자사들무역법301조청원철회 정부비상경제점검회의 최고가격제시행합의 이재명유류세인하폭확대방안검토지시
 - 3.11~15 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방<한>
 - 3.12 <대미투자특별법>본회의처리

내란청산과 검찰개혁의 기로

2차종합특검이 최근 경찰청국가수사본부로부터 3대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이 수사했던 사건20여건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3대특검은 지난해말 수사를 마치면서 기간내 마무리짓지못한 사건들을 경찰로 넘긴 상태였다. 2차종합특검은 앞서 3대특검에서 규명되지않았던 각종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석열의 불법계엄사전기획의혹을 받는 전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입증방안을 고심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재판부는 노상원수첩의 일부내용이 계엄기획과정에서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갱신된 특검수사대상으로는, 도이치모터스수사무마의혹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삼은만큼 김건희를 수사했던 전현직검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를것으로 보인다. 용산구관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친분이 있던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관계자들이 수사받을 가능성도 크다. 정보사령부가 계엄선포직전까지 잠수정과 동력패러글라이딩등을 이용한 복파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등도 특검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윤석열변호인단은 3.5 내란특검범위헌성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윤석열측은 2025.9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형사35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1.16 선고를 앞두고 이를 기각·각하했다.

3.5 쿠광퇴직금지급사건·관봉권띠지분실의혹을 수사한 안권섭상설특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쿠광불기소의압의혹당사자 엄희준부천지청장·김동희차장검사를 직권남용으로 재판에 넘기면서도 그동기와 쿠광과의 유착은 밝혀내지못했다. 관봉권띠지분실에 연루된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며 기소를 안하면서도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보냈다. 또 윗선의 폐기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증거가 확인되지않았다며 단순한 업무상과오로 봤다. 피의자4명과 법인1개를 재판에 넘긴채 띠지분실의혹과 유착의혹사건은 검찰로 보내 책임을 떠넘겼다.

3.3 중수청·공소청설치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정된 중수청설치법안은 수사범위를 기존 9개범죄에서 6개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관련범죄·내란등국가보호관련범죄)로 축소하고 수사관을 단일직급체계로 1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변호사자격이 없더라도 수사·법률업무에 15년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중수청장이 될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공소청설치법안에서 쟁점인 보완수사권문제는 이번 정부안에서 확정되지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에 송치된 사건을 보완한다며 직접 수사하는것이다.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인만큼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수사·기소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경고가 따랐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고 해도 공소청의 막강한 권한이 사라지지않고 전보다 축소하는데 그쳐, 여전히 검사가 사건을 조작할수 있다는 지적도 따랐다. 한편 2.28 <사법개혁 3법>(법외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5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25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권한영특검임명발표

2026 2026.2.5 2차종합특검출범 권한영특검임명

- 2.19 윤석열1심무기·김용현30년·노상원18년·조지호12년·
김봉식10년·목현태3년징역선고
- 2.23 윤석열일반이적혐의10차공판
- 2.25 2차종합특검현판식
- 2.27 법원행정처장사의표명 정청래<사표를낼사람은조희대>

2.28 <사법개혁3법>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국회본회의통과

- 3.3 중수청공소청설치법안국무회의통과
- 3.5 윤석열측내란특검법위헌심판기각불복헌법소원청구
국무회의사법개혁3법공포안의결 2028시행
- 3.6 2차종합특검3대특검수사기록인수
- 3.7 181차촛불대행진
- 3.8 정청래<4무공천><4강공천>강조
- 3.9 권익위김건희명품가방수수사건진상조사지시

6.3 지방선거 예정

〈반제전선의세계민중들과 함께제국주의를타도하자〉

2.21 민중민주당(민중당)·반미투쟁본부·21세기체계바라(Defense Brigade)는 미대사관앞에서 〈마두로석방!볼리바르혁명지지!제국주의타도!〉정당연설회를 2차례 진행했다. 이적반미투쟁본부상임대표는 멀쩡한 나라의 합법적대통령을 체포해다가 석유를 강탈하고자하는 그속셈으로 아직도 석방하지않는 그미제국주의의 속셈을 지금도 바라본다면 우리가 똑같이 당하고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필경미군기지환수연구소소장은 2.18저녁부터 다음날 새벽4시까지 평택의 하늘은 전투기소리로 몇년을 통틀어 가장 시끄러웠다, 미전투기가 송탄기지에서 이륙해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이 기지를 공격하고 〈한국〉이 연루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것, 평택미군기지에는 3달 가까이 대규모의 천막들과 각종이동식발전기시설·통신차량들이 훈련장에 배치중인데 이것도 이례적이다, 얼마전 베네수엘라에서의 전자파공격도 이에 해당하는것으로, 현대미군이 집중하는 분야로 동아시아에서도 준비하는것이라고 폭로했다.

한명희민중민주당대표는 2.20 미국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판결을 언급하며 트럼프가 전세계를 상대로 벌인 관세전쟁에 제동이 걸렸다, 우리는 불법으로 관세인상을 압박하고 대미투자라는 이름으로 3500억달러를 갈취하려 날뛴 트럼프정부의 날강도짓에 종지부를 찍어야한다, 이재명정부는 불법으로 시작한 〈한〉미협상을 당장 파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체계바라단원은 베네수엘라민중은 제국주의프로파간다에 이끌리 나있다, 로드리게스는 탄화수소유기법을 개정하면서 〈베네수엘라민중은외부의그어떤명령도수용하지않는다.베네수엘라민중에게는정부가있으며,이정부는민중에게복종한다.〉고 공언했다, 마두로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민중정권에 대한 확신도, 베네수엘라민중에 대한 복종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것을 볼리바르혁명의 깃발을 쥔 베네수엘라민중이 증명하고있다, 볼리바르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한국〉민중의 민중민주새사회를 위하여, 세계민중의 반제평화를 위하여 단결해 투쟁하자고 힘줘 말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대통령이 미제국주의로부터 납치된지 2달째인 3.3 민중민주당은 미대사관앞에서 〈마두로석방!볼리바르혁명지지!제국주의타도!〉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공동성명〈반제투사마두로석방!제국주의미국타도!〉를 발표했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정초부터 시작된 미국발전쟁은 전세계를 3차세계대전으로 폭풍속에 놓이게 했다, 제국주의미국은 2달전인 1.3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마두로대통령과 플로레스영부인을 납치했고 불법감금하고있으며 베네수엘라원유를 갈취하고 민간선박을 타격해 144명이상이 사망했다, 쿠바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은 또다른 살인행위다, 서반구에서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를 전쟁터로 만든것도 모자라, 동반구에서 이란전을 일으킨 미국은 그야말로 최악의 전쟁국가, 집단학살가해국이다, 우리는 반제민중국가 베네수엘라와 볼리바르혁명을 지지하며, 마두로대통령과 플로레스영부인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반제투쟁국제연대로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명희대표는 베네수엘라 마두로대통령의 불법감금이 2달째 이어지고있다, 반제민중정권의 지도자 마두로대통령이 〈태양의카르텔〉범죄조직을 이끌었다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카리브해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마두로대통령부부를 불법체포·납치했다, 마두로대통령체포와 감금, 미국에서 재판을 벌이는것 자체가 불법이며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행위다, 미국은 서반구요새화를 위해 베네수엘라 다음 쿠바에 대한 석유봉쇄조치를 비롯해 경제·상업·금융봉쇄조치를 확대하며 경제제재를 강화하고있다, 제국주의미국의 베네수엘라의 석유강탈은 서아시아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와 압박, 봉쇄로 이어져 급기야 이란을 침공했다, 베네수엘라·쿠바·이란의 반제정권들과 민중들이 어느때보다도 최전선에서 전쟁도 불사하고 제국주의의 지배와 약탈을 거부하며 결사항전하고있다, 민중민주당도 반제전선으로 뭉친 전세계민중들과 함께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자주와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2.21 민중민주당·반미투쟁본부·21세기체게바라(마두로석방!볼리바르혁명지지!제국주의타도!)미대사관앞정당연설회

2026 ◦ 2.10 민중민주당석권호석방대책위투쟁연대

- 2.21 미군철수투쟁본부미대사관앞1167차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연설 민중민주당·반미투쟁본부·21세기체게바라(마두로석방! 볼리바르혁명지지!제국주의타도!)미대사관앞정당연설회2회진행 공동성명<전쟁의원흉이며평화의파괴자인제국주의를타도하자!>
- 2.23 민중민주당성명<대이란침략전쟁에미쳐날뛰는미제국주의를타도하자!> 민중민주당미전폭기서해출격훈련규탄긴급기자회견참가
- 2.24 민중민주당석권호석방대책위투쟁연대
- 2.25 민중민주당논평<CPM-K오몰레총서기를즉각석방하라!> 세계반제플랫포움성명<오몰레총서기를즉각석방하라!제국주의타도하자!>
- 3.3 민중민주당석권호석방대책위투쟁연대 민중민주당(마두로석방!볼리바르혁명지지!제국주의타도!)미대사관앞정당연설회 공동성명<반제투사마두로석방!제국주의미국타도!>

〈3차세계대전본격화책동을 결단코분쇄하자〉

2.23 민중민주당(민중당)은 성명〈대이란침략전쟁에미쳐날뛰는미제국주의를타도하자!〉를 발표했다. 2.27 민중민주당·반미투쟁본부·21세기체계바라(Defense Brigade)는 〈대이란침략책동중단!미제국주의타도!〉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프닉스상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약속대련〉을 했는데 진짜로 이란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호르무즈해협이 석유수송로가 봉쇄되고 에너지가격상승은 물론 중동전체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것이다,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이 2000여개가 되기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면전에서 그걸 감당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21세기체계바라단원은 핵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군은 첫자폭드론부대를 이란인근에 배치했다, 특히 항모전단2대와 전투기 150대이상등 가용공군무력50%가 이란을 겨누며 서아시아에 집결돼있으니 이란이 전면전을 불사할수밖에 없다, 팔레스타인전과 달리 이란전은 미국을 상대로 한 전면전, 서아시아전이 될것이다, 미국은 대이란침략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28~3.6 민중민주당은 미대사관앞에서 〈이란침공강력규탄!서아시아전도발제국주의타도!〉1~16차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이란에 미국·이스라엘의 침공이 이뤄진 당일 민중민주당은 미대사관앞에서 논평〈미제국주의와이스라엘시오니즘은대이란침략을즉각중단하라!〉를 발표하고 긴급규탄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현지시각 오늘 오전 이스라엘과 미국은 테헤란을 침공하며 〈예방적미사일공격〉이라고 떠들었다, 미제국주의와 그주구 이스라엘시오니스트가 협상판에서 외교놀음을 벌이는 동시에 대규모무력을 동원한 침략전쟁을 준비한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중민주당서울시당위원장은 이것은 단순히 한국가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자국의 이익과 쇠락해 가는 패권을 연장하기 위해 수많은 민중을 피비린내나는 살육전으로 몰아넣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다, 이스라엘의 선제타격과 미국의 비호는 서아시아전체를 불바다로 만드는 서아시아전이며 중국에는 인류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3차세계대전본격화의 서막이다,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3차세계대전본격화책동을 결단코 분쇄해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민중민주당청년학생당원은 미국은 공격시작 단이틀만에 수만발의 미사일을 이란전역에 퍼부었다, 오전수업중이던 이란의 한초등학교가 폭격으로 무너지고 초등학교생들이 목숨을 잃었다, 부모들이 맨손으로 시멘트덩이를 옮기며 울부짖는 현상이 바로 미제국주의가 말하는 〈정의〉의 실체인가고 맹비난했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머지않아 〈한〉미연합훈련이 열린다, 정세가 극도로 긴장돼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세속에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이다, 서아시아전이 장기화되면 동아시아전도 터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3차세계대전이 본격화되는것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3.7 민중민주당·반미투쟁본부·21세기체계바라는 〈이란침공즉각중단!서아시아전원흉제국주의타도!〉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한명희민중민주당대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당장 이란전을 중단해야한다, 이란정권교체를 하겠다하지만 타국의 정권교체를 위해 공격하는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화되지않는다, 이전쟁은 명백히 자신들의 정치경제적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제국주의미국과 시오니스트이스라엘이 벌인 침략전쟁이며 부정의한 전쟁이다, 제국주의침략세력은 이전쟁으로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고 〈신냉전〉체제를 만들려하지만 얻을것보다 잃을것이 더 많다는것을 두려워해야할것이라고 경고했다. 21세기체계바라단원은 2차세계대전이후 가장 광범위한 규모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국가들이 관여하는 전쟁이 벌어지고있다, 〈미국을다시위대하게〉 한다면서 〈민주당이집권하면3차세계대전이일어날것이다〉·〈임기내새로운전쟁을시작하지않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는 최악의 호전광이 돼 미국을 특급전범국으로 전락시켰다, 호르무즈해협이 완전 봉쇄되고 에너지시설이 파괴될경우 그경제적충격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뿐아니라 전세계에 미칠것이다, 기어이 서아시아전을 일으키고 동아시아전을 부추겨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려는 제국주의침략세력에 맞서 반제반미세력은 거센 반격으로 자주와 해방의 날을 앞당길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2.28 민중민주당<이란침공강력규탄!서아시아전도발미제국주의타도!>미대사관앞김정당연설회

2026 ◆ 2.23 민중민주당성명<대이란침략전쟁에미쳐날뛰는미제국주의를타도하자!>

- 2.27 민중민주당·반미투쟁본부·21세기체계바라<대이란침략책동중단!미제국주의타도!>미대사관앞정당연설회
공동성명<대이란침략전쟁책동자행하는미제국주의타도하자!>
- 2.28 민중민주당논평<미제국주의와이스라엘시오니즘은대이란침략을즉각중단하라!>
세계반제플랫폼요성명<이란을침략하는제국주의와시오니즘을타도하자!>
- 2.28~3.6 <이란침공강력규탄!서아시아전도발미제국주의타도!>민중민주당미대사관앞정당연설회총16회
- 3.1 민중민주당논평<미제국주의와이스라엘시오니즘은반드시타도될것이다>
- 3.7 민중민주당·반미투쟁본부·21세기체계바라<이란침공즉각중단!서아시아전원홍제국주의타도!>미대사관앞정당연설회
21세기체계바라학교<한국경제의시한폭탄>
- 3.8 민중민주당·세계반제여성플랫폼<여성반제투사실리아석방!여성억압제국주의타도!>미대사관앞세계여성의날정당연설회
세계반제여성플랫폼요성명<여성의존엄과생명을짓밟는제국주의타도하자!>
- 3.9 민중민주당논평<동아전을불러오는침략전쟁연습인프리덤실드를즉각중단하라!>

무장장비증정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2026.2.18

동지들!

군수공업부문 노동계급은 영광의 당대회에 가장 값진 선물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강위력한 무장장비를 앞세우고 여기 영광의 당대회장으로 달려온 중요군수기업소 노동계급과 일군들에게 열렬한 박수로 감사를 표하는것을 제의합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였습니다.

충성스러운 노력투쟁의 이 귀중한 결실은 당의 위업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굳은 신뢰의 표시이며 당대회의 역사적의의를 부각시키는 의미깊은 성과로 됩니다.

가장 중대하고 책임적인 시각에 이같이 고무적인 진출을 마주하게 된 것은 우리 당대회의 긍지입니다.

장엄히 도열한 이 무장장비들을 보면 알수 있지만 우리 군수노동계급의 힘과 기술에 대해 정말로 탄복하게 되며 경이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와 같이 뜨겁고 진실한 충성의 마음을 간직하고 대중적인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대회에 가장 크고 뜻깊은 창조물을 증정한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 군수공업부문 전체 노동계급과 과학자들에게 가장 열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지금 우리앞에 정렬한 이 무기를 600mm초정밀다연장방사포체계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무기체계입니다.

얼마전에도 보도를 통해 요약해 소개해드린바 있지만 이 무기는 전술탄도미싸일의 정밀성과 위력에 방사포의 연발사격기능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한 집초식초강력공격무기입니다.

분명히 방사포이기는 하지만 정밀성과 위력에서 고정밀탄도미싸일과의 차이개념을 사실상 없앤 무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매우 훌륭하고 매력있는 무기입니다.

파괴적성과 군사적가치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의적으로 동시다발적인 파괴에너지를 목적인 표적에 집초시켜 초토화시킬수 있기때문입니다.

어지간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무기체계가 그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특수한 공격 즉 전략적인 사명수행에도 적합화되어있고 인공지능기술과 복합유도체계가 도입된것으로 하여 이 유일무이한 대구역초정밀다연장방사포체계는 현대전에서 공인되어있는 포병의 역할과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가까운 몇년어간에 세계의 그 어느 나라의 기술력도 이와 같은 무기체계급에 도달하지 못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이 무기체계의 이용원칙과 방식에 대해서는 말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교전상대국의 군사하부구조들과 지휘체계는 삼시에 붕괴될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이 무기의 사용이 현실화될 때에는 그 무슨 <신의 보호>라는것도 받지 못할것입니다.

동지들!

자위는 우리의 생명이고 힘이며 그 수단인 끊임없는 갱신과 급속한

증강은 우리의 불변한 목표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정학적인 적수들에게 몹시 불안해할 국방기술의 성과들을 계속 시위할것입니다.

여러차 언급하였지만 그렇게 하는것 자체가 억제력행사의 책임있는 자세입니다.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제일로 믿음직한 억제력으로 된다는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법칙이고 철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이나 글이 아니라 실천으로 준비하고 능력으로 담보해야 합니다.

견결한 대적관과 최강의 군사력증강, 공세적인 대응방식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보장의 기본담보가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오늘의 뜻깊은 계기로써 부단히 갱신하고 진화하는 우리 국방기술력에 대한 자신감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국방력현대화의 의지를 백배하였습니다.

우리당 제9차대회는 이같은 성과에 토대하여 자위력건설의 다음단계 구상과 목표를 천명하게 됩니다.

외부세력의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강력히 제압할수 있는 우리의 군사력을 부단히 갱신해나가는 사업은 더욱 가속화될것이며 이 영예로운 투쟁은 국방분야 연구집단과 군수노동계급의 더 큰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국방연구집단과 군수노동계급이 혁명의 요구, 당의 전략적구상을 실현하는 중대한 임무수행에서 보다 훌륭하고 고무적인 성과들을 이룩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인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노동계급에게 당 제9차대회는 뜨거운 경의와 감사를 보낼것입니다.

이 뜻깊은 증정식에 다시한번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2026.2.19

친애하는 대표자동지들!

오늘 우리는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행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로 될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5년간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자랑찬 연대기입니다.

우리의 장구한 사회주의건설사에 언제한번 순탄한 시기가 없었지만 지난 5년과 같이 간고하고 힘겨운 환경을 극복하며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당 제8차대회가 소집될 당시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조건은 말그대로 자체를 보존하기도 힘들 정도로 엄혹하였습니다.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봉쇄와 제재책동이 더 극심해지는 속에 연이어 겹쳐드는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으로 하여 모든 분야의 발전이 심히 억제되고 우리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었습니다.

더우기 나라의 경제사업은 수십년전부터 지속되어온 과도적이며 임시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어느 부문이나 발전지향성이 없이 제각기 현상유지에만 급급하고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로부터 당 제7차대회가 결정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들도 심히 미달한 상태에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사업을 결속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당 제8차대회는 제7기기간 내세웠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들의 비과학성을 신랄히 분석비판총화하고 진부한 모든것들에 강한 타격을 주었으며 당시 상황하에서의 앞으로의 사업목표와 발전방향을 명백히 규제하고 그 해결을 위한 주요이론적 및 실제적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방면에서의 계획은 반대하였지만 명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당장 할수 있는것은 다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불가능한것은 가능한것으로 만드는것부터 시작하여 기어이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 사업계획들은 엄격한 과학적검토와 토의끝에 수립되고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환경은 매우 어려웠지만 당과 인민, 군대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강력한 실천행동으로 착수하여 정치와 경제, 국방, 문화, 외교를 비롯한 모든 방면에서 당결정을 성과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주목할만하고 포괄적이며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그 과정에 우리의 주체적 힘을 비상히 제고시켰습니다.

특히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선인 경제분야에서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기본적으로 완수되고 주요공업부문들의 기술하부구조와 기능을 보강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어 우리 경제의 적지 않은 분야가 오랜 기간의 노후와 침체에서 벗어나 계획적으로, 활력있게 전진할수 있게 하는 일정한 토대와 잠재력이 다져졌습니다.

뿐만아니라 수도와 지방을 다같이 변모시키고 인민생활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대한 계획들이 당적, 국가적으로 강력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이 사업을 더욱 적극화해나갈수 있는 옳은 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정치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지난 시기와는 대비할수 없는 속도로 변천되는 현실을 매일 매 시각 체감하고있으며 앞으로 가야 할 길, 우리 국가의 발전전망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확신을 가지고있습니다.

5년전 우리가 혁명앞에 조성된 최악의 난국을 자력으로 타개하고 전진과 발전의 새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겠다는 신념과 의지, 각오를 가지고 당 제8차대회를 소집하였다면 오늘은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되어 당 제9차대회에 임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커다란 변화이고 발전이며 현 단계에서의 자부할만한 성과입니다.

더우기 당 제9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노력성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귀중한 결실들과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지난 5년간의 행로를 빛나게 결속하였으며 이로 하여 이번 당대회는 명실공히 성공을 의미하는 대회, 더 큰 성공을 기약하는 대회로 됩니다.

총결기간 이룩된 성과들은 전적으로 모든것을 감내하며 굴함없이 당의 노선과 정책을 일심전력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마련된 위대한 전취물입니다.

나는 견결하고 적극적인 개척정신,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당 제8

기기간을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양양기로 전환시키고 당 제9차대회를 고귀한 총화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는데 공헌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 공민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총결기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업에 값높은 삶을 바친 혁명동지들, 열사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조국의 융성과 발전에 뜻과 마음을 함께 하고있는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본 대회는 당 제8기기간 사업정형을 정확히 분석총화하고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노선과 정책들을 확정하며 당의 영도력을 정비강화하기 위한 조직기구적대책들도 수립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당앞에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켜세우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변해야 할 무겁고도 절박한 역사적과제들이 나서고있으며 이것은 순간의 답보나 정체도 허용하지 않고 더 적극적이며 완강한 투쟁을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특히 새 전망계획기간은 새시대 지방발전정책, 농촌혁명강령을 비롯하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기 위해 책정하고 시발을 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진척시켜야 할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에 비해볼 때 현재 당, 정권기관들과 일군들의 사업에는 뿌리깊은 패배주의와 무책임성, 보수주의와 형식주의, 지도능력의 미숙성과 같은 심각한 결점들과 부정적요소들이 적지 않게 내재하고있으며 이는 모든 분야에서의 급속한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당과 국가사업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난관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총결기간 이룩한 성과를 놓고 긍지를 가질뿐 아니라 결함들에 대하여서도 비판적, 발전적견지에서 총화하면서 다음단계의 투쟁을 위한 계획사업들을 치밀하고도 과학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그 실행을 주도할수 있는 지도역량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로부터 당중앙위원회는 당 제9차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총결기간의 성과와 결함들에서 경험과 교훈을 똑바로 찾으며 그에 따르는 옳바른 대책을 강구하는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당대회를 실속있게 준비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는 비상설대회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필요한 분과들을 내왔으며 방향별, 부문별로 요해그루땀들을 파견하여 해당 부문, 단위들의 5년간 사업을 전면적으로 요해하고 걸린 문제들과 그 근원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활동정형을 놓고 어떻게 역할하였으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발전을 똑바로 견인하였는가를 평가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부문별로 새 전망계획기간에 도달할 발전목표와 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 당대회준비위원회에 제기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당중앙위원회 부서들에서도 앞으로의 계획과 수행대책에 대한 혁신적이며 구체적인 의견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당규약개정과 관련한 문제, 당의 지도역량을 정비하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새시대 5대당건설노선의 요구에 맞게 당의 영도적기능을 보다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전당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지도기관 사업총화를 경

험과 교훈을 정확히 찾는 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당대회 대표자 선거와 방청자추천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각 도당대표회에서 선거된 당대회 대표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자격심의를 엄격히 하였습니다.

자격심의를결과 대표자로 선거된 모든 동지들이 지금까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충취세우는데서 뚜렷한 실적이 있고 앞으로 당 제9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도 한몫 단단히 할수 있는 우리 당의 핵심분자들로서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본 대회에는 제8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224명과 전당의 당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 4,776명 하여 모두 5,000명의 대표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표자구성을 보면 당, 정치일군대표 1,902명, 국가행정경제일군대표 747명, 군인대표 474명, 근로단체일군대표 32명, 과학, 교육, 보건, 체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대표 321명, 현장에서 일하는 일군, 핵심당원대표 1,524명입니다.

대표자 가운데 여성은 413명입니다.

본 대회를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을 비롯하여 각급 당조직들에서 추천된 방청자 2,000명이 시청하고있습니다.

친애하는 대표자동지들!

지금 우리는 전당의 당원들이 조직적의사를 담아 부여해준 당대회 대표자라는 값높은 영예와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뜻깊은 대회장에 모였습니다.

인민의 권익과 속망실현을 위한 우리 당의 성스러운 투쟁행로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으로 될 제9차 당대회에 대한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대단히 크며 대회가 자기 사업을 원만히 하도록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임이 우리들 모두에게 지워져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영광스러운 역사에서 아홉번째로 되는 이번 대회의 전체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본 대회가 위대한 김일성 - 김정일주의에 철저히 충실할것을 엄숙히 선서하면서, 모든 대표자동지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열의에 의하여 본 대회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강력히 인도하는 의의있는 역사적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에서 조선노동당규약 개정 2026.2.22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는 우리당 특유의 면모와 영도력을 가일층 향상시키고 당사업과 당활동을 보다 정규화, 규범화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을 반영하여 개정한 조선노동당규약을 심의하였다.

조선노동당규약에는 새시대 5대당건설노선을 사상이론적지침으로 하여 전당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당의 일관한 입장과 의지를 담아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율건설, 작풍건설을 항구적인 당건설노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당건설과 당활동전반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중앙집권적규율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당중앙지도기관들의 권능과 사업체계를 명백히 규제하였다.

당대열의 질적공고화를 실현하고 당규율적용의 과학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를 보강한것을 비롯하여 당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서 장, 조항의 일부 내용들을 개정하였다.

본 대회는 수정보충한 당규약이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굳

건히 다지고 불패의 향도력을 규범적으로 철저히 담보함으로써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빛나게 완수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보면서 조선노동당규약으로 할것을 결정한다.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 결정서
조선노동당 총비서 선거에 대하여** 2026.2.22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노숙하고 세련된 영도밑에 오늘 사회주의전면적건설을 위한 우리의 혁명위업은 비상한 속도로 전례없는 기적을 이룩하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역사의 온갖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공화국의 장성발전사에 일찌기 없었던 거창하고도 세기적인 변혁을 창조해가는 격동적인 투쟁의 연대에 진행되는 이번 당대회에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전당의 조직적의사를 체현한 영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인 조선노동당의 수반을 선거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국가와 인민을 인도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승리로 조직영도하는 중책을 지닌 조선노동당의 수반을 선거하는것은 당의 영도력과 조국과 인민의 장래운명을 결정짓는 중대사로서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사업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

지금 수백만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의 시선은 이 결정에 집중되어있다. 본 대회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노동당의 최고직책에 또다시 선거할데 대한 정중한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이것은 김정은동지의 거룩한 존함을 백전백승의 기치로 높이 들고 세기적인 전변을 이룩하여온 지난 5년의 투쟁과 그 위대한 결실에 대한 역사의 평가이고 전체 인민의 선택과 의지가 담긴 책임적이고도 엄숙한 입장표명이다.

우리 당이 장구하고도 성스러운 역사에 고수해온 숭고한 이념과 이상 이 거창한 현실로 전환되고 주체혁명의 노정우에 강대하고 번영하는 국가건설의 새시대가 펼쳐지는 분수령에서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 공화국무력 전체 장병들은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이자 우리 당의 향도력이고 우리 국가의 힘이며 사회주의의 영광이라는 철리를 신념으로 새기며 김정은동지를 단결과 영도의 중심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받아들여갈 충심을 결의하고있다.

김정은동지는 비범한 사상이론적예지와 특출한 영도력, 고매한 인민적품모를 지니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가장 걸출한 정치가이시며 위대한 우리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대성과 불패성을 대표할수 있는 유일한분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 - 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실현된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서의 조선노동당의 혁명적성격을 철저히 견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새시대 5대당건설노선을 제시하시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영도하시여 조선노동당을 정치적으로 원숙하고 조직적으로 굳건하며 사상적으로 순결하고 규율에서 엄격하며 작풍에서 건전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양양기를 강력히 인도하는 정치적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우리 당의 영도력을 만대로 이어나갈 결정적담보를 마련한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목표와 실현가능성이 뚜렷한 투쟁강령을 밝혀주시고 정확하고 독창적인 혁명적영도로 공화국역사에 일찌기 없었던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자립경제의 안정적발전을 위한 과학적인 투쟁방침을 명시하시고 5개년계획수행과 전반적경제장성의 귀중한 성과를 안아오시였으며 건설혁명의 일대 고조로 경제문화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구축하시고 짧은 기간에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는 경이적인 현실을 펼치시였다.

오래동안 발전의 질곡으로 남아있던 지방의 낙후성과 농촌의 후진성을 청산하고 전국의 물질문화적환경을 개변하기 위한 방대한 혁명이 개시되고 그 빛나는 결실들로 전면적부흥의 백년대계가 다져지고있는 것은 오직 김정은동지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역사적인 공적이다.

나라의 의료부문을 선진적으로 재건하는 보건혁명의 획기적인 결과들이 이루어지고 과학, 교육, 체육, 문학예술부문에서 괄목할 성과들이 연이어 달성되고있는것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를 총괄하시며 국가발전의 높은 단계를 개척해나가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영도의 결실이다.

위대한 수범으로 조선사람의 긍지와 자부심을 백배해주시며 애국으로 뭉쳐진 일심단결의 위력을 끊임없이 발양시키시고 실천투쟁속에서 조국과 혁명에 충실한 사회주의건설자들, 계승자의 대부대를 역세계 키우시는 김정은동지의 걸출한 영도방식과 거룩한 혁명실록은 당과 조국청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시책들이 인민들의 폐부에 뜨겁게 가닿게 하시고 어떤 위기속에서도 인민의 생명안전을 굳건히 지켜주시며 인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정으로 보살피시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위민헌신의 세계는 만사람을 매혹시키고있으며 우리 조국을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내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방위력의 중추이고 평화수호의 기둥인 조선인민군을 최정예화, 강군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어 어떤 침략위협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고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만반으로 준비된 혁명적무장력을 건설하시였다.

우리 군대를 조선노동당의 사상과 위업을 앞장에서 받드는 전위대로 강화하여오신 김정은동지의 영도는 우리 당이 세계적인 대업들을 과감히 전개하고 혁명의 전진속도를 가속하게 한 원동력이다.

견결한 혁명정신과 강철의 의지, 특유의 배짱과 담력을 지니신 절세의 애국자를 최고수위에 모시였기에 역사의 준엄한 도전속에서도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전쟁역력력이 비약적으로 제고되고 우리 국가가 부흥과 번영의 궤도로 출기차게 전진하여올수 있었으며 조국과 인민의 장래운명이 믿음직하게 담보되고있는것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한 혁명적원칙성과 비범한 지략, 원숙한 대외활동으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를 비상히 높이고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시였으며 자주와 정의의 위한 인류공동의 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조선노동당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시고 주체조선의 준위와 국력을 힘있게 펼치시였으며 인민의 이상과 숙원이 실현되는 사회주의전면적건설의 새 전기를 펼쳐나가는 김정은동지는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공화국의 탁월한 정치활동가이시며 가장 열렬한 애국자, 우리 민족의 출중한 대표자,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위대한 존엄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과 열렬한 사랑, 탁월한 정치실력과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끝없는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시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노동당의 최고수위에 또다시 높이 모시는것은 시대와 역사의 엄숙한 요구이다.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우리 국가의 융성을 위하여 전체 대표자들과 수백만 당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절대불변의 의지와 일치한 의사에 따라 김정은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할것을 결정한다.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결론 2026.2.23

친애하는 대표자동지들!

우리 당역사에서 아홉번째로 열린 본 대회는 조성된 대내외형세속에서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국면을 새로운 단계으로 이행하기 위한 중대한 투쟁계획들과 당의 계속적인 강화발전에 목적을 둔 문제들을 상정하고 토의하고있습니다.

자료통보와 사업총화보고를 통하여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진행한 사업정형이 구체적으로 분석총화되었으며 앞으로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와 투쟁노선, 전략전술들과 기본적인 과제들이 명백히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의 시점에서 지나온 5년간의 투쟁정형을 종합분석한것은 건인불발하여 이루어낸 결실들에 대한 마땅한 자부와 함께 앞으로 더욱 견지하고 발양시켜야 할 귀중한 경험들은 어떤것들이며 시정해야 할 편향들과 교훈들은 어떤것들인가를 분명히 새길수 있는 유익한 계기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대표자동지들이 총결기간 사회주의건설과 당건설에서 일어난 변화들과 발전정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와 결부하여 현재 자기 부문과 자기 단위가 어느 위치에 도달하였는가를 정확히 가능할수 있었을것입니다.

새로운 5개년계획의 투쟁방향을 대하면서 도 지나온 변혁의 5년을 더 위대한 변혁의 5년으로 이어가야 할 혁명의 요구, 시대의 요구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겠는가를 자각하고 자신심과 분발심을 가다듬는 엄숙한 마음가짐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본 대회는 또한 제8기기간 당중앙전원회의들에서 당사업실천의 요구에 따라 수정하기로 한 당규약의 일부 조항들과 새로 규제할 내용들을 포함한 당규약개정안을 심의하고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보다 방대하고 막중한 혁명과업의 실행을 조직영도할 제9기 당중앙위원회를 당원대중의 신망이 높으며 실천투쟁속에서 검증되고 전도가 기대되는 건설하고 우수한 동지들로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대회는 제8기 당중앙위원회사업을 총화하고 당사업과 혁명사업전반에 대한 영도적책임과 역할을 새로 선거된 제9기 당중앙위원회에 인계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자동지들!

본 대회에서 나는 영광스럽게도 전체 대표자동지들과 전당의 당원동지들의 높고 두터운 신임속에 조선노동당의 최고영도직책에 또다시 선거되었습니다.

아직 인민의 이상실현을 위한 거창한 위업이 시작을 뚫고 불과하고 누차 인민들과 한 약속을 다 지키자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스러운 중책을 다시금 맡겨준것은 더 노력하고 더 분투하기를 바라는 하늘같

은 믿음과 기대의 표시라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전체 대표자동지들과 수백만 당원동지들의 커다란 기대와 신뢰에 어긋남이 없이 항상 당과 인민앞에 지닌 사명과 책임을 가장 신성하게, 가장 막중하게 간직하고 당의 규약과 강령을 철저히 준수, 실행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권과 안전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하루빨리 달성하기 위해 일각일초를 아껴 전심력을 바치고 헌신복무할것임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새로 선거된 제9기 당중앙위원회는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책임적인 영도적역할로써 충실히 보답할것이며 위대한 우리 국가의 발전을 다그치고 우리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많이, 더 빨리 차례지게 하는것으로써 자기 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을것입니다.

대표자동지들!

본 대회에서 이제 남은 주요일정은 분야별로 되는 금후 5년간의 전망 계획수립사업이며 그 결과에 대한 결정채택입니다.

앞으로의 5년간의 투쟁을 방향지고 도달해야 할 각 분야의 목표들을 확정하는 연구사업과 협의, 결정채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당대회의 기본성과가 좌우되게 됩니다.

때문에 지난번 제8차 당대회때부터 이 공정이 특별히 중시되고 여기에 대회사업의 초점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대표자동지들이 조국과 혁명, 인민앞에 걸머진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다함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와 태도로 임하며 한조항 한조항이 5년간 투쟁의 변혁적과업이 될수 있게 창의창발성과 혼심을 다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새로 선거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당대회결정이 임기기간에 일관하게 들고나가야 할 실천강령으로 되는것만큼 정책적과업들의 책정에서 고도의 책임성과 신중성을 발휘하여야 할것입니다.

보고에도 제기하였지만 이번의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안정공고화단계, 점진적인 질적발전단계로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부문들의 계획들을 확정함에 있어서 현존태도와 역량을 질적으로 공고히 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두 측면을 잘 배합하여야 할것이며 그밖의 다른 분야의 계획들을 협의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향을 견지하여야 할것입니다.

대표자동지들!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을 포함하여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다그치는 오늘의 변혁투쟁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총노선입니다.

우리 사회주의건설의 전 과정은 3대혁명으로 일관되어있으며 3대혁명노선을 관철하는 투쟁속에서 전진하여왔습니다.

사상개조,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개조, 문화개조를 다그쳐온 3대혁명이 있었기에 우리식 사회주의는 준엄한 난국에도 좌절됨이 없이 전진의 한길만을 새겨올수 있었습니다.

전면적발전의 거창한 위업도 3대혁명수행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이 사업에 대중자신이 주인공이 참가할 때야만 더 빨리, 더 실속있게 실현될수 있습니다.

현실은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이 변화된다고 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기술수준, 문명수준이 절로 높아지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인 실례로 당과 국가가 현대적인 생산기지, 봉사기지들을 새로 꾸려준지 1년도 못되어 관리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지도통제도 소홀히 하는 극도의 태만과 무책임성, 당정책의 산물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고 목전의 이득에만 치중하는 고질적인 병집들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결코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닌 소중한 창조물들이 실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위대한 밑천이 되도록 잘 관리운영하는것도 방대한 건설사업에 못지 않게 중대하고 책임적인 혁명과업으로 되는것입니다.

혁명이란 물질적변화, 물질적부의 창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변하고 높은 창조력을 지닌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이 혁명에서 기본내용을 이룹니다.

사람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자각적열의와 기술수준,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3대혁명을 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재부들을 만들어놓아도 얼마 안있어 수포로, 허사로 돌아갈것은 명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새시대의 새 주인들로 교양육성하여 자각적으로 본연의 사명을 다해나가는 관점과 일본새를 사회전반에 확립하기 위해서도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특히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을 심화시키는것이 절박한 과제로 나섭니다.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사업을 떠나서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적전진을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 정권기관들에서 모든 사업을 3대혁명수행의 견지에서 특히 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각성시키고 성장시키는 견지에서 조직하고 집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적인 사상의식, 노동계급의 집단주의정신과 투쟁기풍을 체질화하도록 할데 대한 당적요구를 오늘의 높이에서 목적지향성있게 실현해야 할것입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면에서 시대발전예에 맞는 새로운 과업을 제기하고 자연개조, 인간개조, 사회개조사업을 혁신적으로 해나갈 때 비로소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제8기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전면적발전의 시대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할데 대한 사상이 특별히 강조되었습니다.

새시대의 요구가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되었는데 다시한번 간단히 개괄한다면

사회주의건설전반에서 일치한 행동통일을 보장하고 강한 기강을 세우는것이며

낡은 도식과 틀,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부시고 새것을 부단히 창조하고 혁신해나가는것이며

사업을 과학적으로 예견성있게, 실리있게 진행하고 전문가적자질을 중시하는것이며

생산과 건설에 대한 지도방법, 지도방식을 혁신하고 일군들의 지휘능력을 높이는것이며

사상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전면적발전기에 들어선데 맞게 모든 사업을 개선하고 혁신하는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른 합법칙적인 요구이기도 하지만 지난 5년간의 투쟁에서 찾은 심각한 교훈으로부터 제기된 절실한 과제입니다.

국가사회생활 특히 경제분야의 부문과 단위들마다 새시대의 전진기

상이 약동하고있는 반면에 낙후한 유물들도 병존하고있다는것은 우리가 다 알고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낡고 뒤떨어진 유물들을 언제까지나 남겨둘수 없으며 낙후성과 폐단들을 극복청산하는데서 더욱 과감해야 합니다.

3대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의 온갖 낡은것을 청산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인것만큼 전면적발전의 시대적 요구는 마땅히 3대혁명수행과정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을 우리 식의 전진방식으로 박력있게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당 제8기기간에 단기전략, 단기계획을 세우고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이를 확실한 밑천으로 하여 성과를 확대, 공고화해나가는 경협을 쌓았습니다.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5년 주기의 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수행해나가는것은 국력을 비축하고 이상사회를 중국적으로 건설하는데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로, 과정으로 됩니다.

이런 과정을 뚫으며 모든 분야가 숙성되면 우리가 이상하는대로 나라의 국력을 공고한 기초우에서 크게 키울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10년, 20년후에는 우리 당창건 90돐, 100돐을 맞게 되는데 지금과 같은 투쟁방식으로 국가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착실히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온 나라를 변모시키고 전국인민들을 잘살게 할수 있으며 그때에 가서 우리 당은 참다운 인민의 당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에 충실했음을 당당히 자부할수 있을것입니다.

대표자동지들!

사회주의전면적발전기를 개척한 지난 5년간의 투쟁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새로 시작되는 5년간의 투쟁도 역시 전적으로 우리의 주체적역량,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거할것입니다.

당 제8기기간에 우리가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이념을 투쟁과 전진의 기치로 높이 들었던것처럼 이번 당중앙위원회 제9기 사업기간에도 이 세가지 이념을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자고 합니다.

우리의 이상과 목표, 전진속도는 부단히 변화발전하지만 조선혁명고유의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이념은 불변이며 이것이 안고있는 무궁무진한 힘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휘황한 미래로 확신성있게 떠밀어나갈것입니다.

그 어떤 도전도, 그 어떤 정세변화도 우리의 전진을 지체시키질수도, 막을수도 없습니다.

모두다 사회주의위업의 전도에 대한 자신심과 열정, 투지를 백배하면서 우리 인민의 이상과 숙망을 훌륭히 실현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아갑시다.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기념 열병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2026.2.25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당원동지들!

영웅한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열병부대 지휘관, 병사들!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 대표자동지들과 평양시민 여러분!

동지들!

영광스러운 혁명의 행로우에 전진의 새 표대를 세우고 우리 투쟁대에 충성한 활력을 재운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를 기념하여 여기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5년전 바로 여기서 새로운 개척을 결의하며 출발하였던 우리가 소기의

의 목적을 이루고 오늘 또다시 계속되어야 할 성스러운 투쟁의 시작을 마주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광의 이 시각을 맞고보니 오직 승리로써만 총화되어야 하는 당대회를 위하여 우리 인민과 그의 아들딸들이 아낌없이 고여온 노력과 그 무수한 낮과 밤들에 찍어간 걸음들이 다시금 밝혀와 참으로 감개한 마음입니다.

오늘의 이 순간을 받들어올리기 위해 이 나라의 모든 공민들과 가정들, 우리 군대가 1,800여일을 밤을 잊고 휴식을 잊으며 즐기치게 달려왔고 귀중한 모든것을 기꺼이 바쳐 참으로 값비싼 기록들을 역사의 갈피에 수놓았습니다.

그렇듯 고결하고 애국적이며 성스러운 투쟁실록은 오직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강인하며 슬기로운 우리 인민, 우리 군대만이 새겨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지니고 변함없는 한모습으로 결연히 받아들여온 영웅적인 투쟁과 그의 귀중한 전취물들이 없었다면 우리 당활동의 위대한 총화도, 더 높은 목표여로의 신심높은 출발도 기대할수 없습니다.

오늘의 기념열병식은 참으로 간고하였던 투쟁을 자랑스럽게 총화한 긍지에 넘쳐 또다시 위대한 새 개척을 위한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충천한 기세와 혁명적열정을 남김없이 시위하게 될것입니다.

나는 뜻깊은 이 자리를 빌어 역사의 도전과 난국을 헤쳐넘는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으로 우리 당을 따라 가장 중대하고 관건적인 혁명단계를 슬기롭게 경과한 영예로운 추억과 드높은 자신감을 안고 새 전망여로의 투쟁노정에 힘있게 들어선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원동지들, 노동계급과 각 부분의 근로자들,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당과 국가의 존위를 상징하는 가장 높고 빛나는 결실들이 우리 군대의 피어린 투쟁과 불굴의 노력의 결과이라는것을 다시금 새겨안으면서 성스러운 우리 위업에 고귀한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우리 군대 전체 장병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경의를 보냅니다.

동지들!

우리 당이 새겨온 승리적행로와 우리 군대의 걸음걸음을 기억하고있는 이 광장은 당 제9차대회를 기념하는 뜻깊은 첫 의식으로서 우리 군대의 열병식을 올리였습니다.

우리당 제9차대회가 자랑스럽게 총화하였지만 당의 사상과 위업에 절대충성하는 우리 군대의 불변의 본성은 가장 거창한 투쟁의 시대에 다시한번 확인되었으며 이는 우리 위업의 굳건함과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됩니다.

저 끝끝하고 늠름한 열병대오야말로 우리 당역사의 분수령과 또 한단계의 새로운 출발이 맞닿은 영광의 이 시각에 당당히 전열에 나설수 있는 대표자들이고 상징대오라고 이름할수 있습니다.

열병부대와 전체 인민군장병들!

이 열병의 주로는 시대와 혁명이 내여준 공화국무력의 값높은 지위이며 혁명의 척후에서 즐기치게 이어가야 할 충성과 위훈의 진격로입니다.

인민군대는 당에 충실한 혁명적무장력으로서, 국가방위의 핵심으로서, 거창한 전변의 개척자로서,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대한 우리 시대의 주역을 계속 믿음직하게 감당해나가야 합니다.

국제적인 평화보장체계가 여지없이 붕괴되고 군사적폭력의 남용으로 도처에서 파괴와 살육이 그칠새 없는 현 세계에서 국가와 인민의 생

존권과 발전권을 굳건히 지키는것은 그 무엇과도 나란히 놓을수 없는 최종대국사이며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우리 무력의 본분입니다.

우리 무력은 모든 상황에 준비되어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나라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어떤 세력의 군사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즉시에 처절한 보복공격을 가할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적수들의 전쟁의지를 선점할수 있는 멸적의 사상의지와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기술력,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의 근기확립을 항구적인 목표로 틀어쥐고 적들이 두려워하는 힘의 실체로 부단히 강해져야 합니다.

창조와 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는 사회주의건설장들은 우리 군대의 고결한 피와 땀이 스민 영예로운 복무의 터전이며 값높은 명성을 계속 빛내야 할 불퇴의 전역입니다.

우리 군대는 사회주의건설의 어느 방면에서든 진격의 기치가 되고 막아서는 난국에 파구를 내는 돌격대가 되어야 하며 완벽한 실천으로 새시대의 본보기들을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이 내놓아야 합니다.

당의 사상과 영도가 전군의 제일생명으로 되고 당의 노선과 정책이 군사활동의 제일척도로 되며 당의 명령집행이 전체 장병들의 제일직분으로 될 때 우리 군대의 투쟁기는 백전백승으로 끝없이 이어질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우리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존과 명예를 수호하고 인민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안겨주기 위한 금후투쟁에서 조선인민군의 절대적인 충의심과 불같은 애국심, 견결한 개척의지와 강대한 힘이 남김없이 발휘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동지들!

우리는 숭고한 이상을 향하여 또다시 투쟁에 궐기하였습니다.

이룩한 결실들은 소중한것이지만 위대한 우리 국가와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이 누려야 할 복리에 비하면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 당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서라도, 어떤 어려운 길을 걸어서라도 아름다운 조국의 미래를 반드시 당겨올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충성한 우리의 자신심, 더욱 과감히 전진할수 있는 동력은 당의 숙원과 인민의 이상을 성취하는것을 자기의 존재성과 본연으로 간주하는 우리 군대의 절대적충의와 특출한 정신력입니다.

우리 군대의 강철의 부대들과 전군의 장병들이 헤쳐가는 그 개척로를 밟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용감히 진군할것이며 원대한 목표를 향한 조선의 시간은 멈춤없이 흐를것입니다.

그 성스러운 행정에서 우리는 오늘과는 또 다른 분명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것이며 이 광장은 승리자들의 대오를 계속하여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모두 지축을 울리며 용감히 출발합시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융성변명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의 불패성을 위하여 당 제9차대회가 열어진 새시대의 투쟁으로 힘차게 나아가갑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폐회사 2026.2.25

친애하는 대표자동지들!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는 상정된 모든 의정들을 책임적으로 토의결정

하고 자기 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당역사에서 아홉번째로 되는 본 대회는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진척되고 세계정치정세가 심각히 격변하는 시기에 열린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수백만 당원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간고했던 우리의 지난 5년간의 위대한 투쟁을 성스러이 총화하는 대회장에 충성과 애국의 마음을 엮고 더 긴장된 창조투쟁, 노력투쟁을 벌리면서 당대회사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전세계의 이목도 조선노동당이 어떤 혁명적인 전략과 투쟁방침을 제시하고 자기 위업을 어떤 새로운 높이에서 전진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데로 집중되었습니다.

이번에 모든 대표자동지들이 당과 인민의 기대를 무겁게 자각하고 맡은 사명수행에서 고도의 신증성과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기에 본 대회는 목적한바를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대회의 모든 사업과 일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총화할수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는 참으로 간고한 투쟁의 위대한 총화이고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대표하여 상정된 의정들을 성과적으로 토의하는데서 하나같이 진지하고 적극적이며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여준 전체 대표자동지들에게 다시한번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일편단심 당을 충직하고 견결하게 받드는 특유의 기개로써 우리 당대회에 크나큰 고무와 힘을 실어주고 당대회사업의 성과를 담보해준 전당의 당원동지들과 온 나라 인민들, 전체 우리 군대 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대표자동지들!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는 우리 당과 혁명의 현 국면을 보다 유리하게 전변시키고 국가사업의 모든 방면에서의 점진적이며 안정적인 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새로운 단계로 고조시켜 나가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하여 총결기간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정확히 분석하고 총화지음으로써 우리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 그리고 우리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이 다시금 입증되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사업들에서 성과를 확대할수 있다는 명확한 확신을 가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달성해야 할 뚜렷한 과업과 목표를 내세우고 그 완수를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반적위력을 보다 강화할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를 열어나가는 투쟁을 더욱 신심있게 다그칠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시대 당건설노선의 요구, 더 심화되는 투쟁단계의 혁신적인 요구에 맞게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가일층 높여나갈수 있는 담보가 주어진것은 더없이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조선혁명의 앞길에 새 표대를 세워준 본 대회의 사업성과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전도에 대한 절대적인 사명감, 시연속에서 더 역세여지고 승화되는 우리만의 힘과 자신심의 시위입니다.

이 모든것으로 하여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정치적사변으로 빛날것입니다.

대표자동지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이상사회로 가는 전진도상에서

반드시 경과해야 하는 심각한 개조투쟁, 변혁투쟁이 또다시 우리앞에 놓여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해온것보다 더 아름다운 과제와 거창한 계획들을 결행해야 하는 필수불가결의 투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길은 명백하며 승산은 확고합니다.

유례없이 복잡다단하고 격변하는 현 세계에서 추호의 흔들림도 모르고 올바른 국가건설전략, 정확한 혁명의 진로따라 사회주의전면적발전으로 보다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게 된것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니고있는 크나큰 자부이고 긍지입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전망계획들과 투쟁과업들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신심과 낙관, 애국의 열정과 기개를 북돋아주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는 고무적 기치로 될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한마디로 전면적발전기를 개척한 투쟁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한단계 더 높은 결실로 이어나가자는것입니다.

지난 총결기간 쟁취한 성과들을 조국과 혁명, 인민의 재보로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모든 분야에서 보다 실제적인 개선과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는 사상과 정신이 본 대회에 관통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당 제9차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투쟁과 전진의 기치로 높이고 혁명실전에 일관하게 구현하여 전당강화의 새 전성기를 열어 나가야 할것이며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진일보를 이룩해나가야 할것입니다.

특히 새 5개년계획을 연년이 드팀없이 수행하는것과 함께 그 과정을 확실하고 고무적이며 의의있는 자랑스러운 결과들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본 대회가 확정한 새 5개년계획은 사회주의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을 보다 확대심화시키는것을 목표로한 계획으로서 앞으로 어떤 사상적관점과 태도로 일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어떤 실천적성과를 내놓아야 하는가 하는 요구를 제기하고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과제수행의 중임은 전체 대표자동지들과 새로 선출된 우리 당중앙지도기관에 지위져있습니다.

오늘의 이 대회에 참가하여 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전당의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안고 당대회결정을 직접 채택한 대표자동지들부터가 새로운 역사적투쟁의 앞장에 서야 합니다.

전체 대표자동지들은 이 시각을 더 과감한 분투와 노력의 새 출발로 간주하고 이제부터 당 제9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전열에서 힘차게 일해나가야 하며 일터와 초소들에서 핵심적역할을 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중진을 이루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활동은 언제나 정확하고 책임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하지만 오늘 조국과 혁명, 당원들과 인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비할바없이 높아졌습니다.

모든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대회앞에 다진 맹세를 향상 되새기고 막중한 사명감을 수시로 자각하면서 당과 국가사업을 책임적으로 떠메고나가야 할것이며 제9기기간에 자기 부문, 자기 지역, 자기 분야를 부단한 개선과 새로운 발전으로 적극 이끌어야 할것입니다.

해당 부문과 단위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조직들이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참신하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전당의 당조직들은 5년간의 투쟁계획을 당원대중의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 연차별로, 세부적으로 명확히 세우고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깡그리 분출시키기 위한 당적지도, 정치적지도를 심화시켜 내세운 목표를 빛나게 달성해나가야 할것입니다.

특히 당대회결정관철의 첫해인 올해부터 기세를 올리고 투쟁력을 배가하면서 계획을 드팀없이 성과적으로 완수함으로써 5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반드시 열어제껴야 합니다.

모두다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번영의 연대기에 또 한페지를 아로새길 거창한 새 변혁의 시대를 힘차게 개척하기 위하여 일심분투해나갑시다.

이제 할 대회의 폐회선언은 장엄한 5개년계획의 서막을 여는 순간이며 긴장한 올해 2026년 투쟁의 출발신호탄으로 됩니다.

대표자동지들!

굳은 의지와 신념, 확신과 자신심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일어납시다.

나는 모든 대표자동지들과 전당의 당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드높은 혁명적기세와 과감한 투쟁에 의하여 본 대회가 제시한 노선과 정책, 결정들이 반드시 빛나게 관철되고 우리 당과 혁명발전,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역사적전환이 일어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여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2026.2.26

수천만 조선인민을 영도하여 강국건설의 새시대를 펼치고있는 혁명의 전위대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사명감과 강력한 자부심, 무비의 전투력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지위와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며 이 땅의 모든 세대들이 숙원해온 강대한 힘과 값높은 존엄, 눈부신 용성을 역사우에 거연히 떠올리고있다.

우리 조국의 영웅적장로에서 언제나 인민을 혁명에 불러 조선의 기적, 조선의 영광을 창조하여온 위대한 우리 당이 백전백승의 기치로, 향도의 등대로 솟아있기에 우리에게는 이루지 못할 꿈이 없고 넘지 못할 준령이 없다는것은 세기를 이어온 신성한 체험만이 아닌 지나온 5년간의 1,800여일이 시대의 벽에 다시금 의미깊게 새겨놓은 만고의 철리이며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심장마다에 역세계 세워진 강철의 신념이다.

국가와 인민의 사활과 혁명의 진퇴가 좌우되던 모진 극난의 시기에 자기의 모든 명예와 존엄, 운명을 건 담대한 개척과 완강한 투쟁으로 인민이 열렬히 환호하는 전면적국가부흥의 장쾌한 서막을 열어제낀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탁월한 영도활동은 우리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더욱 선명히 조명하며 새로운 투쟁단계로의 뚜렷한 이정표와 필수적인 추진력을 마련해주었다.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영광스러운 행로에서 일대 분수령을 이룬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가 2026년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에 대한 절대적신뢰와 일심충성이 새로운 승리에 대한 열망으로 고조되고있는 시기에 진행된 당 제9차대회는 지울수 없는 뚜렷한 경륜을 청사에 아

로새기였다.

언제나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하고 영예로운 공적을 총화해온것이 조선노동당대회역사이지만 당 제9차대회처럼 청사에 특기할 무수하고도 값진 기록들로서 총결기간의 사업을 긍지높이 총화한적은 일찌기 없었다.

세월의 흐름이 가져다준 결과가 아니라 인민의 뜻과 의지대로 세월을 앞당겨 전취한 빛나는 성과를 안고 인민의 기대어린 시선앞에 나선 당중앙위원회는 수백만 당원들과 수천만 인민의 운명과 미래, 신념과 슬기를 대표하여 사회주의발전노정에 도래한 전환적국면을 보다 높은 단계으로 인도하는 역사적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당 제9차대회는 그 어떤 시련과 도전속에서도 조선혁명의 전 역사를 관통하여왔고 오늘의 값비싼 승리만이 아닌 백년, 천년의 승승발전을 담보해주는 자주, 자립, 자위의 국가건설사상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노선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생명선으로 하여 모든 이상과 포부를 반드시 성취하려는 조선노동당의 절대불변한 정치기조와 정치의지를 내외에 다시금 엄숙히 각인시키였다.

우리 혁명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인민의 강렬한 애국열의, 충천한 자신심에 부응한 용성의 새 전망을 가리킨 당 제9차대회를 경유하면서 조선노동당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로서의 불멸할 명함과 영도적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지지속에 소집된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에는 전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5,000명의 대표자들이 참가하였으며 방청자 2,000명이 대회실황을 시청하였다.

2월 19일 9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대회주석단에 등단하시였다.

전체 대표자들은 천재적인 사상이론과 걸출한 영도실력, 무비의 신념과 의지로 우리 당과 인민에게 후세토록 길이 빛날 존엄과 명예를 안겨주시는 탁월한 정치활동가이시며 가장 열렬한 애국가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최대의 경의를 담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 올리였다.

당 제9차대회는 개회에 앞서 우리 당의 정치선언, 투쟁강령을 견결하고 적극적인 개척정신과 백절불굴의 분투로 옹위하고 당대회를 고귀한 총화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는데 공헌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하였으며 총결기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업에 값높은 삶을 바친 혁명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또한 사회주의조국의 용성과 발전에 뜻과 마음을 함께 하고있는 해외 동포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보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의 장중한 주악속에 대회가 개막되였다. 전체 대표자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최고 대표자이신 김정은동지를 위시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을 포함한 39명으로 집행부가 구성되였다.

도당책임비서들과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서 자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결정집행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일군들, 대회에 초대된 우당위원장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대회는 당중앙위원회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신뢰심과 혁명위업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의 열정과 기백을 체현하고있는 영예로운 대표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열의속에 진행되였다.

당 제9차대회에서 상정토의된 의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둘째 조선노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셋째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대회는 첫째 의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토의사업의 첫 공정으로 총결기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을 청취하였다.

대회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영도밑에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등 당과 국가사업전반에서 획득한 의의깊은 성과들과 축적된 귀중한 경험과 교훈들이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다음단계의 발전공정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귀중한 포석으로, 보다 큰 변혁과 성공을 담보하는 비약의 도약대로 된다고 평가하였다.

8기기간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주체적힘이 비상이 증대되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단계으로 이행할수 있는 과학적인 발전토대가 구축되고 국가의 부흥을 더욱 가속화할수 있는 자신심과 충분한 능력이 확보된데 대하여 대회는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역사적인 제8기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되어있다.

1. 총결기간 이룩한 성과
2.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3. 대외관계의 확대강화를 위하여
4. 당건설과 당사업의 심화발전을 위하여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의 빛나는 완수를 위하여 분투하여온 지난 5년간은 우리 당의 80년행로에 특기할 새로운 변혁시대가 열린 전환의 연대였다.

총결기간 우리 혁명의 대내외형세는 복잡하고 엄혹하였으나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을 확신성있게 영도하여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왔다.

제8기 당중앙위원회는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을 자체의 힘을 키우는 데로 지향시켜 주체적역량을 비상이 강화하였으며 그에 의거하여 전면적인 발전의 새 단계를 완강하게 개척하여왔다.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힘겨운 많은 난관들과 부닥치면서 우리 당은 현 단계에서 발전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향을 확정지었고 나라의 잠재력을 강화할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결과 우리 혁명의 전도와 국가와 인민의 미래는 더 자신심있고 명백해졌다.

당중앙의 두리에 전당의 당원들과 수천만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이 한 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모든 성과들에 의해 사회주의강국으로 향한 우리 당,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의 줄기찬 전진은 더는 되돌릴수도, 거스를수도 없는 대세로 되였으며 이야말로 지난 5년간의 가장 뚜렷한 변화이고 더없이 긍지높은 결실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의 첫째 체계에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기간에 이룩한 괄목할 성과들과 그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총결기간 이룩된 제일 중요한 성과는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새 흐름을 개척한것이다.

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고 거쳐야 할 역사적단계이며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절박하게 제기되는 시대적과제였다.

우리 당은 전국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안정시키고 실제적인 복리를 안

겨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선진적인 국가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주객관적조건이 어렵고 불리해도 사회주의건설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데로 이행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으며 이를 더는 미룰수 없는 중차대한 혁명의 기본과업으로 제기하고 과감하게 이행하여왔다. 국가경제의 전반부문을 정비하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정책과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책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정연한 지도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자립적인 생산구조를 완비하고 뒤떨어진 부문들을 추켜세우는데 목적을 둔 인민경제 각 부문의 기술복원과 보강, 발전사업에 힘을 넣은 결과 생산장성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다져지고 주저 않았던 부문들이 정상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전반을 동시적으로 들어올릴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농업문제, 농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방의 방대한 사업들이 전개되며 나라의 알곡생산구조에서 변혁이 일어나고 빈약했던 농업생산력이 한층 개선되었으며 세기적인 낙후가 남아있던 전국의 농촌마을들이 새롭게 변모되어가는 흐름을 열어놓았다.

이와 동시에 나라의 과학기술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보건을 선진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났으며 각 분야들에서도 혁신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의 투쟁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전국의 시, 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창한 혁명이 개시된것이다.

보고에서는 우리 당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제시하게 된 동기와 목적, 2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경이적인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당은 지방인민들의 오랜 숙망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결심으로부터 지방경제발전과 관련한 지난 시기의 교훈을 깊이 분석하고 경험축적단계를 거쳐 지방공업공장들을 완전히 새롭게, 선진적으로 재건하기 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내놓았으며 이 정책은 전국인민들의 전적인 지지속에 당해연도에 과학과 보건, 문명생활분야를 아우르는 다방면적이고 폭넓은 지방발전정책으로 확대심화되었다.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이 심화되는 과정에 우리 당의 국가건설전략은 지방의 발전이 우리 국가의 진전과 발전을 대표하게 하며 지방의 이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발전상으로 되게 하려는 보다 높은 목표로 승화되었다.

지방발전정책의 생활력은 해마다 전국각지에 무수히 일떠서는 새로운 실제들과 더불어 향상되어가는 인민들의 생활에서 명백히 표현되고있으며 또한 보다 높아가는 인민들의 이상과 자신심, 분발된 노력에 의하여 더욱 커지고있다.

보고에서는 보건위기, 재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국가, 우리 사회고유의 견고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고 전사회적으로 재해방지사업에 사활을 걸고 달려붙는 기풍이 확립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총결기간에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또한 국가경제전반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고 인민들의 복리와 관련된 사회주의적시책들을 확대실시한 것이다.

당중앙위원회는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여 경제전반을 통일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업체제와 질서를 세우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내각의 지휘밑에 모든 경제활동에서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의 요구를 드팀없이 구현하도록 조직지도하였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초급당위원회들에 이르기까지 인민경제계획을 당결정으로 채택하고 그 실행정형을 엄격히 총화하는 제도를 정연하게 세웠으며 인민경제발전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는 12개 중요고지들을 설정하고 그 점령에 힘을 집중하면서 경제전반의 장성추이를 힘있게 안받침하였다.

이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기본적으로 완수되었으며 이것은 지나온 30여년간 경제분야에서 처음으로 되는 가장 뚜렷하고 의의있는 성과로서 앞으로의 경제발전전망을 확실하게 낙관할수 있는 중대한 진일보로 된다.

총결기간 당중앙위원회는 평양시 5만세대 주택건설을 숙원사업으로 내세우고 온갖 난관과 편향을 극복하면서 매해 어김없이 추진하여 예정계획을 훨씬 초과하는 살림집들과 새 거리들을 건설하였으며 삼지연시의 농촌마을들을 현대적으로 전면시키고 그 경험에 토대하여 전국의 모든 시, 군들에서의 농촌주택건설을 강력히 전개한 결과 지난 5년간 11만여세대의 농업근로자들이 새집에 입사하였다.

검덕지구에 수만세대의 살림집들을 건설하는 사업이 완결되고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의 수해지역들에도 수만세대의 새 주택들이 일떠섬으며 해마다 수많은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국가의 부담으로 건설하여 도시와 농촌의 근로자들에게 배정해주는 공산주의적시책이 중단없이 실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고유한 풍경으로, 우리 인민들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고있으며 전체 인민들에게 새 생활, 새 행복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있다.

그리고 유명한 명승지들인 명사십리와 온포온천지대에 훌륭한 관광지와 휴양소를 꾸리는 사업이 완료되고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던 평양종합병원건설이 완공되었으며 연포와 강동, 신의주지구에 대규모 온실농장들이 일떠섬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유족한 생활조건을 보장할수 있는 사회주의재부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각 도들에서도 인민들의 문명과 복리를 위한 생산시설과 공공시설, 봉사시설들을 일떠세우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의의있는 결실들을 이룩하였다.

총결기간 제일 간고한 고비였던 비상방역시기에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젓제품을 공급하고 영양식품이 차례지게 할데 대한 새로운 육아보육정책이 책정되어 철저히 집행되고있으며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과 신발, 가방을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생산공급하고 학생소년들에게 교과서와 학습장, 필기도구를 비롯한 학용품을 정상보장하는 사회주의적시책들도 드팀없이 실시되었다.

확대심화된 인민적시책들은 대중적인것, 인민적인것이 중시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우리당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외교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실증하고있다.

지난 5년간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전면적인 발전국면이 열린 시기인 동시에 공화국의 안전이익이 굳건히 수호되고 국제적위상이 더욱 높아진 시기였다.

첨예하고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속에서 강권과 불의를 실력으로 제어하고 국가의 안전과 주권적권리, 국제적정의를 수호하는 자주적이며 실효적인 국가방위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한것은 총결기간에 이룩된 위대한 결실의 하나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방건설에 관한

자위의 노선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총결기간 방위력강화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 국방건설의 각 방면에서 혁신적인 성과들을 달성한 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제일 중대하고 전략적인 의의를 가지는것은 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를 되돌릴수 없게 영구적으로 다진것이다.

국가핵무력정책이 전체 인민의 총의를 반영한 공화국법으로 채택된것은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미제국주의와 그 추종무리들의 반공화국책동이 끝장나지 않는한 우리의 핵무력강화노정은 계속될것이라는 초강경노선을 선포하고 우리의 핵을 놓고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흥정할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역사적사변이었다.

이에 토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억척불변의 의지를 공화국헌법에 명기하였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의 핵정책과 그 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영존할 최고법으로 담보하는 필수불가결한 역사적, 정치적과제가 빛나게 해결되었다.

지금 우리의 핵무력은 그 어떤 침략전쟁도 물리적으로 강력히 억제하는 자기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실제로 우리는 전쟁 그자체를 억제할 능력을 가지고있으며 어떤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즉시 보복할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내었다.

공세적이며 과감한 투쟁으로 비축한 우리의 절대적힘은 철저히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방위력으로서 적수국들의 전쟁도발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안보환경이 나날이 첨예해지는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을 두고 정치적이며 물리적인 위헌행위를 기대할수 없게 되었다.

보고에서는 우리 당이 공화국무력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로 만들데 대한 강군건설노선과 방침, 무장력의 3대요소에 관한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고 군건설에 구현하여 우리 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위력을 더욱 강화한데 대하여 언급되었다.

인민군대에서는 정치사상강군화를 군건설의 제1의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고 당중앙의 영도에 절대충성, 절대복종하는 혁명적군풍확립을 부단히 심화시키었으며 모든 장병들을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에 무한히 충실한 정신력의 최강자, 참된 애국군인으로 키웠으며 강군건설의 2대전선인 훈련혁명과 군사교육혁명수행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지나온 5년간 우리 인민군대는 하루도 안일함이 없이 상승적으로 감행된 적수국들의 대조선전쟁연습과 군사적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무분별한 도발책동들을 단호히 제압분쇄하면서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다.

특히 중요하게 평가할수 있는것은 군대의 각급이 훈련혁명, 사상혁명, 장비혁명을 앞세워 전투능력을 더욱 고도화한것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총결기간 국방과학연구집단과 군수공업분야에서 국방발전 5개년계획을 실현하는데 총력을 다하여 국가의 방위력을 현대화하고 이미 쟁취한 군사기술적강세를 고도화하는데서 비약적인 성과를 달성한데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시었다.

총결기간은 우리 나라 국방공업발전역사에 특기할 전환의 연대였다. 국방방위력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로 되는것은 전략적성격의 기술현대

화, 여러 방면에서의 개발성과들이 확보되어 국가의 군사력구조를 개편하고 갱신하는데서 뚜렷한 변혁이 일어난것이다.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이익을 견결히 수호하기 위한 총결기간의 투쟁성과에 토대하여 우리 당과 국가는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보장, 평화수호는 불변한 선택이고 원칙이며 이에 준하여 적수들이 추구하는 모든것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는것을 당당히 선언하였다.

현재도 지역의 안보상황과 긴장상태가 의연히 악화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성이 지난 시기보다 더 높게 유지되고있는것은 객관적정세가 아무리 험악하다 해도 그것을 통제할수 있는 주체적세력이 충분하면, 강한 힘이 있다면 전쟁은 능히 억제되게 된다는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있다.

보고는 전면적발전을 개척하기 위한 총결기간의 투쟁이 가지는 심원한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사회주의전면적발전에 관한 주요정책들과 그 철저한 집행과정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개편을 힘있게 추동하였으며 동시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촉진하고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의 역할도 높이는 일거다득의 효과를 나타내고있다.

이로 하여 지난 5년간의 투쟁은 나라의 전반적인 생산력뿐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 생활환경이 다같이 변화발전하는 새로운 혁명과정으로 승화되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전면적발전국면을 여는 과정에 거창한 변혁사업을 밀고나갈 역량이 마련되고 귀중한 경험이 축적되었으며 이 역사적과제를 더 폭넓게, 더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다는 전당적, 전인민적인 자신심이 높아진것이 더욱 중요하다.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새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주관적조건과 환경이 불리하다고 해도 혁명이 요구하고 인민들이 바라다면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굳히었으며 정확한 노선과 정책, 영도가 있고 이를 실천할수 있는 주체적역량이 있으면 어떠한 시련과 난관도 극복하고 능히 성공적인 결실을 이루어낼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의 주되는 요인은 우리 당,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의 특유한 힘인 정치사상적위력에 있다.

제8기기간에 이룩된 변혁적성과들은 우리 당이 일관성있게 견지해온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이념이야말로 사회주의건설에서 그 무엇에도 비할바 없는 비상한 견인력과 생활력을 발휘한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들에는 당과 국가,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를 엄숙한 본분으로 새겨안은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적인 투쟁과 특출한 공적이 역력히 새겨져있다고 하시면서 지난 5년간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전초에서,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는 준엄한 전장에서 또한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당의 명령지시를 받들어 피와 목숨, 땀으로 거대한 성과를 쌓아올리고 무수한 영웅적위훈을 기록한 우리 인민군대를 본 대회의 명의로 높이 평가하자는것을 정중히 제의하시었다.

대회는 김정은동지의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당의 사상과 영도에 절대충성, 절대복종하며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에 무한히 충실한 전체 인민군장병들에게 뜨거운 경의의 인사

를 보내었다.

대회는 또한 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대건설장들과 일터마다에서 새시대 애국청년의 열정적이고 용감한 기개와 투쟁력으로 거창한 청년기념비들과 창조물들을 연속 일떠세우며 지난 5년간을 영광넘친 우리나라 청년운동의 새 분수령으로 빛나게 장식한 자랑스러운 청년세대들의 역할도 높이 평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의 둘째 체계에서 전면적발전기에 견지해야 할 중요요구와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의 각 부문별 전망목표들, 그 실현을 위한 과업들을 밝히시었다.

전면적발전기의 시대적요구는 첫째로, 사회주의건설전반에서 일치한 행동통일을 보장하고 강한 기개를 세우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는 것이며 둘째로, 낡은 도식과 틀,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타파하고 새것을 부단히 창조하고 혁신해나가는 것이며 셋째로, 사업을 과학적으로 예견성있게, 실리있게 진행하고 전문적자질을 중시하는 것이며 넷째로, 생산과 건설에 대한 지도방법, 지도방식을 혁신하고 일군들의 지휘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며 다섯째로, 사상의 힘, 대중의 정신력으로 만사를 해결해나가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배치되는 온갖 부정적현상들과의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리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은 당 제8기기간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성시킬 수 있는 발전토대를 구축하고 인민생활을 실제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은 안정공고화단계, 점진적인 질적발전단계로 되어야 하며 이것이 당중앙위원회 제9기사업의 총적목표로, 원칙으로 되어야 한다.

보고는 내각에서 나라의 경제실태를 심층히 분석하고 발전가능성을 타산한데 기초하여 작성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지표별목표들을 언급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기간공업부문의 생산토대를 질적으로 다져 경제전반의 장성발전을 강력히 담보하는것을 중요과업으로 상정하고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투쟁목표들을 밝혔다.

국가경제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전망을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는 자원개발, 채취공업부문과 입업, 철도운수부문의 과업들도 제기되었다.

보고는 새 전망계획기간 경공업부문에서 질개선과 새 제품개발에 모를 박고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며 새로운 경공업토대를 구축해나갈데 대하여 지적하고 학생교복과 가방, 신발의 질을 계속 철저히 담보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을 위한 당과 국가의 사회주의적시책들이 사소한 편향도 없이 정확히 실시되게 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였다.

양어와 양식을 수산업발전의 기본방향으로 내세우고 대대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와 상업과 급양편의봉사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이 언급되었다.

보고는 5개년계획기간에 농업부문에서 점령하여야 할 알곡생산목표와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알곡생산구조를 바꾸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고 밀가공능력을 확장하며 종자혁명과 과학농사, 간석지농사, 두벌농사, 토지개량을 알곡생산증대의 중요한 담보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현대적인 남새온실농장건설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며 남새생산의 과

학화, 집약화, 공업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축산업발전에서 중요한 정책적요구는 첫째로, 축산기지들을 현대화하는것이며 둘째로, 우량종자의 확보와 충분한 사료보장, 과학적인 사양관리와 철저한 수의방역, 생산과 경영관리의 정보화, 지능화의 5대고리를 틀어쥐고나가는것이며 셋째로, 풀먹는 집집승기르기를 대대적으로 하는것이다.

나라의 관계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간석지개간목표를 점령하며 토지정리를 잘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든든히 구축하는것과 함께 농기계혁명을 다그쳐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 전망계획기간에도 건설사업을 계속 전개하여 국력강화의 토대를 다지고 인민들을 새로운 문명으로 인도하며 복리를 증진시켜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었다.

수도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풍격을 갖춘 훌륭한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앞으로 2년동안 화성지구를 정치, 경제, 문화적기능을 완벽하게 갖춘 행정구역의 표본으로 전면시킴을 위한 건설을 더 진행하면서 주변구역을 조화롭게 연결하고 정리하는 건설도 해야 한다.

전국의 도소재지들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개변시키는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방대한 건설과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재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이 상정되고 건축설계와 건설감독사업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이 강조되었다.

보고는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정보산업부문이 또 한번 진보를 이룩하는 단계로 되게 하며 대외무역을 활발히 전개하고 관광업을 나라의 경제장성과 문명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에서는 국토관리와 생태환경보호에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제기하였으며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하는 문제, 각종 재해위기에 주동적으로 준비있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계속 강구해나갈데 대한 문제, 법기관들과 감독기관들에서 생태보호사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도수를 높여 우리 영토를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게 꾸려나가는데 이바지할데 대한 문제 등이 강조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지방발전, 농촌건설을 더욱 다그쳐 해마다 지방과 농촌을 새롭게 변모시키며 전국인민들의 물질문명생활에서 보다 큰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히시었다.

지방발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전개하여 올해부터는 매해 20개 시, 군들에 지방공업공장들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어김없이 건설해야 하며 연초의 착공을 연말의 준공으로 이어나가는 우리의 투쟁방식, 전진속도를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농촌의 도시화, 문명화,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완강하게 다그쳐야 한다.

보고는 과학기술과 사회주의문화발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하였다.

새 5개년계획기간 과학기술사업의 기본방향은 국가경제의 자립화, 현대화수준을 제고하고 생산의 질적인 장성을 보장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것이다.

특히 먼 장래가 아닌 현실적문제제로 부상하고있는 새 에네르기산업,

우주산업, 인공지능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분야, 첨단기술산업을 개척하고 운영하는데서 나서는 핵심기술들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 전망계획기간 교육사업의 목표는 모든 학생들을 혁명실천에 이바지하는 쓸모있는 인재로 알차게 키우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수준차이를 결정적으로 줄이며 나라의 전반적교육토대를 현대적으로 완비하는것이다.

2025년에 출발을 땀 보건혁명에서 거둔 성과를 보건부문전반으로 급속히 확대하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건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가져다주고 나라의 보건토대를 한단계 더 높은 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앞으로 5년동안 지방들에 현대적인 보건의시설들을 일떠세우는 사업을 드팀없이 완강하게 내밀어 전국의 100개 시, 군들에 모든 면에서 보다 선진적이고 완비된 병원들을 훌륭히 건설하며 시, 군병원과 리진료소사이에 필수적인 의료기관들도 추가로 설치하고 도소제지들에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과 수도에 제2, 제3의 종합병원, 새 구역병원들을 건설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인민들의 혁명의식, 창조욕, 투쟁의식을 높여주고 광범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데로 창작창조활동을 지향시켜 영화와 음악, 무대예술, 미술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개화기가 펼쳐지게 하여야 한다.

출판보도부문에서는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노선과 방침들, 현실에서 발휘되는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설득력있게 해설선전함으로써 당의 사상과 목소리가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야 한다.

체육발전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며 건전하고 고상한 사회주의생활이 온 사회에 지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고는 국가사회제도의 끊임없는 공고발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하였다.

법제부문에서는 새로운 당정책들이 제시되고 투쟁과 생활의 영역이 확대되며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조건이 변화되는데 맞게 적시적으로, 합리적으로 부문법들을 제정하고 수정보충하여 혁명과 건설의 정확한 법적기준, 실제적인 법적무기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최고주권기관과 지방주권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범법해설을 강화하는것으로써 혁명적준법기풍확립의 선풍을 일으켜야 한다.

사법검찰, 사회안전, 보위기관들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정치적인정, 인민의 생명재산을 법적으로 수호하는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에 충실하여 국가사회제도의 공고발전을 강력하게 담보해나가야 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국가존립의 초석인 자위적국방력의 지속적인 강화발전을 위해 더욱 과감하게 투쟁해나갈 우리 당의 불변한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우리가 역적으로 다져온 자위적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해나가는것은 불가불위의 우리당 국방건설정책이며 가장 정당한 국가방위전략이다.

세습적이고 고질적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공화국창건 이래 순간의 평안도 없이 악화일로를 기록하여온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은 더욱더 무모해지는 적수국들의 연합공조와 핵요소가 동반된 군사적움직임으로 인하여 해를 넘기며 예측할수 없는 위태한 상황으로

치닫고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주도의 침략적인 뿔뿔들의 확대강화와 도를 넘는 군사활동들은 명백히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심상치 않은 사태를 몰아오고있다.

새로운 위협들이 점증하는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정치정세와 세계군사력의 새로운 발전추세는 우리로 하여금 적이 두려워하는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국방력을 유지하면서 항상 앞서나가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것을 각각 절감하게 하고있다.

공화국무력을 그 어떤 적도 사상정신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압승하는 세계최강의 현대화된 군대로 계속 장성강화시켜야 한다.

전쟁억제전략, 전쟁수행전략실행에서 중추를 이루는 국가핵무력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우리의 핵보유국지위는 적수들의 잠재적위협을 억제하고 지역안정을 유지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핵무력은 나라의 안전과 이익,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는 기본담보이고 강력한 안전장치이다.

우리 당은 핵을 동반한 제국주의의 압제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교리로부터 모든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국가핵무력건설노선을 조금도 주저없이 세상에 선포하였으며 그 실현을 강행추진하였을뿐 아니라 우리의 핵보유국지위를 당당히 국법으로 고착시켰다.

현재 우리 당의 핵역량증강노선은 우리의 핵기술분야 연구집단과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고도의 기술력에 의해 정확히 집행되고있으며 그 전망성은 대단히 만족스럽다.

우리는 앞으로 연차별로 국가핵무력을 강화할 전망적인 계획을 가지고있으며 핵무기수를 늘이고 핵운용수단과 활용공간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할것이다.

우리 핵무력의 준비태세를 항시 유지하고 국가핵억제력의 구성부분들의 운용효과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부단한 시험과 훈련을 실행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억제력구성부분들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위력을 과시하는것은 그자체가 전쟁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로 된다.

우리는 만약 적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가 언제든 처절한 보복공격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것을 제대로 알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달라진 능력에 맞게 그리고 전망적인 목표에 상응하게 대상과 사명에 따르는 각이한 핵무기들의 군사적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충적인 타격수단들과 운용지원체계들을 갱신할것이며 핵방아쇠 즉 통합핵위기대응체계의 가동 및 운용시험, 핵무기취급질서와 운용동작에 숙달시키기 위한 각종 연습들을 통하여 핵전투무력의 실전화를 고도화함으로써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에서도 핵방패가 신속정확히 가동될수 있게 임전태세를 만반으로 갖추도록 할것이다.

최근년간 부단히 진화된 우리 핵무력의 기술적갱신은 이미 많은 핵대응작전가능성을 제공해주고있다.

다시말하여 보다 정교해진 핵무기가동체계와 예민한 반응성은 임의의 핵비상사태속에서도 우리의 판단과 목적에 따라 여러 대응안대로 핵무력을 동원시킬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실로 커다란 성과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핵기술분야의 지속적발전을 도모할수 있게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제공, 지원할 것이며 핵관련시설들에 대한 보안 및 경제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의 기능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가 갖추고 있는 상용무기들을 세계적수준의 위력한 무기들로 갱신하는 사업을 강하게 내미는 것을 당의 강군건설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시었다.

보고는 해군 수상 및 수중전력의 핵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작전능력을 급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군사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강군건설의 2대전선인 군사교육혁명과 훈련혁명을 더욱 고조시켜 인민군대의 전쟁수행능력강화에서 중대한 진보를 가져올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인민군대에서는 정치사상강화화를 강군건설의 제1의 전략적과업으로 틀어쥐고 공화국무력을 사상의 위력으로 백승하는 혁명강군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모든 군사기지들을 표준화하여 갱신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며 새로운 군사하부구조들을 건설하기 위한 전망적인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연차별로 집행해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과 잇닿아있는 남부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요새화하고 경제체계와 화력체계를 보강할데 대한 당의 군사전략적방침을 책임적으로 관철하여야 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새 5개년계획기간에 공화국무력의 군사기술력을 세계최강의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새로운 비밀병기, 특수한 전략자산들을 우리 군대에 취역시킬데 대한 중대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해당 부분들에서 수립한 새로운 국방발전계획을 심중히 검토하였으며 확신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전망계획들을 비준한데 대하여 밝히시었다.

요약해 소개한다면 여기에는 축적된 기술들을 종합화하여 더욱 강력해진 지상 및 수중발사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종합체와 각이한 인공지능무인공격종합체들,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과 적의 지휘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전자전무기체계들, 더욱 진화된 정찰위성들이 포함될것이다.

이미 개발된 신형병기들의 실전배비를 다그치는것, 이것이 금후 5개년전망계획의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앞으로의 5년기간 전략적인 적수들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무기체계들과 특히 한국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주력타격수단들인 600mm방사포와 신형 240mm방사포체계들, 작전기술미사일종합체들을 연차별로 증강배치하여 집초공격의 밀도와 지속성을 대폭 제고함으로써 전쟁역제력의 핵심부문을 더욱 강화하게 될것이다.

이제 5년후 새로운 국방발전계획이 수행되면 우리의 국가방위력은 비상히 증대되어 적들이 대처하지 못할 높이에 있게 될것이다.

보고는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공업부문에서 새시대 국방공업혁명의 가치를 높이 추켜들고 세계적인 국방과학의 발전추이에 맞게 공화국무력의 군사기술고도화, 현대화목표에 상응한 첨단무장장비들을 연구개발하고 계열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과감하게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공화국무력의 중요구성부분인 사회안전군과 노동적위군의 전신작전전투능력과 협동능력을 제고하는것을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의 셋째 체계에서 총결기간 국제적인 정치안

보구도와 역량관계, 정세흐름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시었다.

지금의 세계는 5년전과도 완전히 다르며 국제관계는 혼란과 격변의 소용돌이속에 들어섰다.

미국의 패권정책과 전횡으로 세계도처에서 평화와 안전의 근간이 심히 흔들리고 무력충돌사태들이 연발하여 현 국제정세는 더욱 혼잡스러운 방향으로 치닫고있으며 시간이 갈에 따라 보다 가변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양상을 보이고있다.

국가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와 국제법의 난폭한 유린, 냉전종식 이후 목격해보지 못한 전지구적인 안보위기, 각국의 정치경제적혼란과 무질서, 이 모든것이 우리가 마주하고있는 현 세계의 실상이다.

강권이 곧 정의라는 논리에 따라 일방적인 패권을 추구하면서 기존국제질서와 기성관례를 무자비하게 파괴해버리고 불안정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원흉은 다름아닌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세력이다.

미국은 이른바 <미국우선주의>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들의 주권과 영토완정, 안전이익은 전혀 개의함이 없이 오직 저들의 패권적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힘을 통한 평화>를 제창하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무력사용을 서슴없이 일삼고있다.

세계를 소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드는 미국의 전횡은 우리에게 있어서 별로 새삼스러운것은 아니며 지금껏 늘 목격해온 특급불량매적, 패권적관습의 지속이며 연장일뿐이다.

미국의 패권정책에 의해 다무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현존국제질서와 국제관계구도에서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있으며 정의의 기준, 힘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있다.

지난 세기 수천만의 인명을 빼앗은 두차례 세계대전의 발원지였던 유럽지역에서도 서방동맹체계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80년래에 처음으로 불과 불이 오가는 최악의 지역안보위기가 조성되었다.

조선반도와 주변지역도 미국을 위시한 추종세력들의 끈질긴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안전파괴적인 조치들로 하여 항시적인 불안정과 긴장격화에 처하였으며 그로 하여 우리 국가의 대외환경은 의연 엄혹하다.

힘이 강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생존과 발전이 가능하지만 힘이 약하면 제재와 침략의 희생물이 되어 궁극에는 주권도, 영토도 강탈당하게 된다는것이 국제사회가 오늘의 냉혹한 지정학적형세를 통하여 보는 현실이며 되새기게 되는 교훈이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한 국제법과 국제질서는 무의미한 빈 공약에 불과하며 법과 질서에 의한 정의로운 제창만으로는 그 무엇도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세계가 늦게나마 깨닫고있다.

힘은 힘을 존중하며 강력한 힘, 핵보유야말로 제국주의적침략야망에 종지부를 찍을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것은 오늘의 세계가 방증하는 진리이며 약육강식의 강도적논리가 지배하는 국제무대에서 작용하는 합법칙적원리이다.

명백한것은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와 평등, 독자성을 실현하려는 진보적인류의 지향은 패권세력의 발악에 정비례하여 더욱 강렬해지게 되어있다는것이다.

이것은 막을수 없는 역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며 필연성이다.

앞으로도 자주역량은 계속 강해질것이며 그의 진보적인 투쟁에 의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건설이 더욱 추동될것이다.

바로 그 중심에 우리 국가가 서있다.

총결기간 조선노동당은 심각한 변천과정에 들어선 국제관계구도의

본질을 분석하고 정확한 대외전략적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준엄한 지역정세와 유동적인 국제관계의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를 완전히 불가역적인것으로, 절대불퇴로 영구고착시킴으로써 세상이 통채로 변하지 않는한 우리의 핵포기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는것을 적수들에게 똑똑히 인식시켰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태생적인 적대적시각과 강권으로 체질화된 불량배적성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일시 감축수는 있어도 바꿀수는 없는것이 바로 침략자의 본성이다.

우리는 현재처럼 앞으로도 계속 미국과의 대결에 만반으로 준비하며 최강경자세를 변함없는 대미정책기조로 확고히 견지할것이다.

하지만 이미 천명했듯이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미국이 관습적으로 우리에게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대응에 일관할것이며 그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충분하다.

조미관계의 전망성은 미국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평화적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것에 준비되어있으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미국이라는 적대적실체에 준비있게 대처해왔으며 앞으로도 추리해볼수 있는 온갖 형태의 도전행위들에 보다 더 잘 준비되기 위해 지금껏 해온바를 더욱 과감히, 더욱 집중적으로 이행해 나갈것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총결기간 우리 당이 공화국창건이후 근 80년에 걸쳐 조선반도에 존재하여온 비정상적인 관계에 역사적종지부를 찍고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간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인 중대결단을 내린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우리 당과 정부의 불변한 원칙적입장을 천명하시였다.

전 역사적과정도 그러하였지만 최근 몇년어간 가깝게는 올해초에도 한국은 공화국에 대한 영공침범도발과 같은 엄중한 행위로 신뢰할수 있고 공생할수 있는 이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애초에 역대 한국집권세력들은 우리와의 진정한 화해와 단합을 바라지 않았으며 음흉하게도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통해 우리 내부에 저들의 문화를 유포시키면서 그를 통한 그 누구의 변화를 피하고 나아가 우리 체제의 붕괴를 기도해왔다.

한국의 현 집권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다.

궁극적으로 전 조선반도를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반동체제로 변신시킬 야망을 품고 겉으로는 기만적인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면서 <조선반도비핵화>의 간판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대한 존재를 같은 <민족>이라는 타성에 포로되어 절대불가능한 화해와 <통일>을 이유로 계속 상대하는것은 더이상 존속시키지 말아야 할 착오적인 관행이다.

변할수 없는 적대적실체로서의 한국에 대하여, 조한관계의 불가양립성에 대하여서는 이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에서 전면적으로 상세히 언급되였다.

우리 당의 대한노선전환은 대결과 완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조한관계사와 조선반도의 객관적현실을 엄정히 분석한데 기초한 가장 정당한 대적투쟁지침으로서 일시적인 전술적조치가 아니

라 우리의 국익과 국위를 수호하고 국가와 인민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역사적인 선택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과거시대의 낡은 관념과 유물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영역에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들을 전격적으로 취하였다.

비현실적인 대화협상, 교류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기구와 단체들을 정리하고 관련법규와 합의서, 시행규정들을 폐지한데 이어 남부국경지역의 모든 연계통로와 공간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법률적, 행정적조치들을 연이어 강구하였으며 군사적으로 요새화하는 조치들을 결행하고있다.

사실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근 80년동안 서로 별개의 국가로서 존재하여왔으며 유엔에도 하나의 의석이 아니라 두개의 국가로 가입하였다.

아직도 한국의 일부 사람들이 국가 대 국가간관계로서의 조한관계를 규정한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적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있는데 사실 그자체가 법률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두개 국가로 공인되어온 조한관계의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대방을 흡수하겠다는 헛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줄 뿐이다.

우리와 근본이 대치되는 적국이 우리에게 대하여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하려고 시도하는 그자체가 기필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도전으로밖에 되지 않을것이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국가의 노선과 정책을 확정하는 집권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를 통하여 다시금 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것이다. 한국과의 연계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것이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남은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있다면 우리 국익에 준한 냉철한 계산과 철저한 대응뿐이다.

한국이 우리와 국경을 접한 지정학적조건을 탈피할수 없는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의 모든것을 단념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것이다.

지금처럼 신성한 우리의 국가주권과 헌법적권리를 걸고두고 침해하는 한국의 대결적행위는 절대로 더이상 용납되지 않을것이다.

한국이 누구와 동맹을 하든, 군사비를 얼마로 늘이든 핵보유국이 구축한 조선반도의 역학구도가 바뀌는 일은 결단코 없을것이다.

한국은 그 누구를 힘으로 압도하려는 절대불가능한 망상에서 벗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흔들어버려는 일방적인 현상변경시도를 철저히 포기하여야 하며 그나마 유지되는 현존안정을 깨뜨릴수 있는 불필요한 동작을 그만두어야 한다.

한국에 대한 고려사항이 백지화된 지금에 와서 역사적으로 유지해온 우리의 군사적대응기준은 본질적으로 달라졌으며 국법이 규제한 억제력의 선제공격사명을 포함하여 적대국에 해당되는 모든 물리력의 사용은 이론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

할수 있다.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붕괴가능성은 배제될수 없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을 철저히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이다. 우리가 가장 신성시하는 존엄과 권익에 부합되는 노선상에서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은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있게 강구될것이다.

우리 당과 정부는 장구한 세월속에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것으로 증명된 한국과의 대화와 협력, 명분 아닌 명분에 추호도 집착하지 않을것이며 역사가 떠밀고있는 냉철하고 정확한 선택에 언제나 충실할것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총결기간 우리 공화국의 지위와 영향력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광복할 성과들을 언급하시고 이것은 우리 당이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국가의 주권적권리와 발전이익, 인민의 권익을 위하여 굴함없이 투쟁해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평가하시면서 금후 대외부문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과 전략전술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대외부문에서는 당중앙의 영도밑에 국익수호를 제일사명, 첫째가는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활동을 주동적으로, 책략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국가의 대외적권위와 영향력을 보다 폭넓게 확대강화해나가야 한다.

당중앙의 영도는 우리 혁명에 있어서 모든 승리와 성과의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비상이 높아진 오늘 대외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리고 국가의 모든 대외활동이 통일적으로 편향없이 수행되자고 해도 당중앙의 영도는 필수적이다.

혁명의 객관적환경이 준엄하고 국제정세가 전례없이 첨예한 현 조건에서 국가의 대외활동에 대한 당중앙의 직접적관여는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때문에 우리 국가의 모든 대외활동은 철두철미 당중앙의 직접적인 지도와 관여밑에 실행되어야 할것이다.

지금 우리의 적수들은 우리가 무엇을 구상하고 무엇을 계산하고있는지 모르고있다.

그들은 알수가 없으며 또 몰라야 한다.

그것이 적들에게는 털어버릴수 없는 불안과 공포로 된다.

앞으로도 당중앙의 직접적인 관여와 전략전술적인 대외활동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수국들을 철저히 견제압박하면서 국제정세흐름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차지하게 될것이다.

당의 존엄은 곧 국가의 존위이며 혁명의 이익은 곧 국가이익이다.

대외부문에서는 모든 대외활동을 철저히 국익수호의 원칙에서 전개해나가야 한다.

국익은 오늘날의 치열한 국가경쟁시대에 있어서 국제관계를 대하는 사고와 관점의 기준이며 국익수호는 우리 국가대외활동의 불변의 원칙이다.

우리는 주변나라들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 끌어올림없이 개화발전시켜나가며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정치외교활동과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국제관계구도도와 호상관계, 정세변화를 예리하게 면밀히 주시하고 정확한 분석평가에 기초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며 그것을 능동적

으로 구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부문 일군들을 우리 당의 주체적외교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된 외교전사로, 능란한 외교술과 높은 실무능력을 소유한 재사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들여 외교일군대열의 질적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우리가 마주하고있는 국제정세는 의연히 엄혹하고 적대세력들의 도전은 더욱 우심해질것이지만 당중앙의 정확한 대외전략적방침과 영도, 강력한 군사적억제력을 담보로 하는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핵보유국지위를 영구히 명문화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수호에 언제나 충실할것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다극화된 세계건설을 적극 추동해나갈것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의 넷째 체계에서 총결기간 사회주의집권당으로서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가일층 제고하고 당건설의 새시대, 전당강화의 위대한 전성기를 열어놓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결기간 당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향도적역량으로 끊임없이 강화하고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진 혁명적당으로서의 본태를 영원히 고수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기틀, 대강이 마련된것이다.

우리 당은 세계사회주의운동이 남긴 비극적교훈과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조건 특히 당사업의 현 실태를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기초하여 당건설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나가는 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5대당건설방향을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정립체계화하였으며 그 집행을 떠메고나갈 핵심골간육성사업에 큰 힘을 넣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계승과 발전을 담보하고 실현하는 성업의 튼튼한 토대를 다지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강화와 당사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제9기기간 당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과업은 새시대 5대당건설강령의 제반 원칙과 요구들을 당사업과 당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주도세밀한 대책을 강구하고 완벽하게 실천함으로써 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룩하는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치건설에 힘을 넣어 우리 당을 높은 영도적지위와 향도력을 지닌 혁명의 참모부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당이 앞으로도 영원히 절대적인 권위와 원숙한 영도력을 지닌 집권당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고수해나가자면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핵으로 하는 특유의 정치풍토를 확고히 유지공고화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당의 정치적영도를 실현해나가는 각급 당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며 당원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적활동성을 제고하는것을 정치건설의 중요한 과제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당의 조직건설을 부단히 심화시켜 우리 당을 당원들과 당조직들이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된 전일체로, 하나의 조직규율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행동의 통일체로 더욱 굳건히 다져야 한다.

전당강화의 3대축인 간부사업과 당장성사업, 당대열관리사업을 계속 심화시켜야 한다.

사상의 위력, 사상사업의 침투력을 최대한 높여 전당강화와 국가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신념화한 참된 충신,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잠시도 중단없이 벌리면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 실효성과 열도를 최대 높여야 한다.

전당에 자각적인 규율준수기풍을 세우고 규율위반행위들과의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리며 각급 당조직들이 직능대로만 사업하는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당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작풍건설을 심화시켜 전당에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사업기풍과 건전한 정신도덕적품모가 당풍으로 확고히 지배되게 하여야 한다.

건당위업의 개척세대들이 발휘한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따라배우고 능숙한 대중공작방법을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당적원칙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 고상한 도덕품성이 일군들의 몸매 천성처럼 배이게 하여야 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정책지도도를 목적지향성있게 해나가며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동맹원들을 새 전방계획수행으로 총결기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기로 당적으로 적극 떠밀어주고 특히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장래운명과 전도를 떠메고나갈 세대들의 대중적정치조직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에 대한 당적지도도를 강화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9기기간에 우리가 수행하고 완수해야 할 투쟁목표와 과업은 방대하고 힘에 겹치지만 과학적인 투쟁노선과 방침이 있고 당과 국가의 정책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나가는 인민과 군대가 있으며 커다란 발전잠재력을 가진 자립경제가 있기에 우리에게서는 정복하지 못할 요새, 이루지 못할 성업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성과에서 더 큰 성과로, 변혁에서 더 큰 변혁으로 나아가는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전진기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것이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는 더 높은 발전단계에 올라서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사업총화보고를 마치시자 비범한 사상이론가, 걸출한 정치지도자를 우러러 터치는 열광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온갖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며 새 변혁시대를 과감히 개척한 총결기간의 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우리시 사회주의 전면적발전기를 확신성있게 고조시켜나갈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투쟁방향과 목표, 실천과업들을 명시한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보고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중요보고의 진수는 간고한 투쟁으로 전취한 값비싼 결실들과 고귀한 총화에 토대하여 전당의 배가된 전투력과 공세적인 전진방식으로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건설전반을 확고한 질적발전과 획기적인 도약의 궤도우에 올려세우자는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사상최약의 위기와 도전속에서도 더는 되돌릴수도, 거스를수도 없는 용성변영의 새 흐름을 개척한 승리자의 영예드높이 혁명과 건설의 전 영역에서 보다 포괄적이며 혁신적인 진보를 안아올수 있는 휘황한 진로를 밝힌 위력한 투쟁강령으로 된다.

대회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중요보고의 진수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망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한 행정에서 전당의 의지와 보조를 일치시키고 과학적인 실행방도들을 확정하는 토의사업을 계속하였다.

각급 당조직대표 19명이 토론 및 서면토론에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열렬한 지지를 표시하면서

서 시대와 혁명, 인민앞에 지닌 중대한 책무수행에서 당의 핵심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대회는 둘째 의정으로 <조선노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우리당 특유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당사업과 당활동을 규범적으로 철저히 담보하는데서 의의있는 문제들이 심의되고 조선노동당규약에 명문화할데 대한 결정이 의결되었다.

대회에서는 셋째 의정으로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토의하였다.

대회는 조선노동당규약에 따라 제8기 당중앙지도기관이 자기 임기를 성과적으로 마치게 됨을 선포하고 제9기 당중앙지도기관 선거를 진행하였다.

대회는 전체 당원들과 당대회 대표자들의 일치한 의사와 염원을 대변하여 김정은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높이 모시였다.

대회는 당규약상요구에 따른 해당 추천 및 선거절차를 거쳐 당의 혁명사상과 강령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고결한 당적양심과 선봉적역할로써 혁명위업의 전진을 힘있게 견인해나갈수 있는 당의 핵심들로 138명의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111명의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선거하였다.

위대한 우리 당을 대표하고 영도하는 수반인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선거하는 중대사에 임하여 대표자들은 당과 혁명, 인민이 부여한 영예로운 사명과 권리를 충실히 행사하였다.

우리 국가와 인민,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그 운명과 전도를 놓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각을 마주한 대회장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전당의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집성하여, 조선노동당의 강화발전과 웅대한 투쟁강령의 빛나는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국가의 용성변영과 사회주의의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 김정은동지께 조선노동당의 최고직책인 총비서의 중임을 다시 맡겨드리자는 정중한 제의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며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대표자들은 전당의 총의를 대변하여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실 때 우리가 가는 길은 언제나 정의와 진리의 길이고 우리가 품은 이상과 포부는 반드시 실현되며 우리가 마중하는 미래는 끝없이 아름답고 창창하다는 절대의 신념, 열화의 일편단심의 강렬한 분출로 대회장은 격정의 대하를 이루었다.

당규약에 따라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월 23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선거하였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박태성동지, 조용원동지, 김재룡동지, 이일환동지가 선거되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박태성동지, 조용원동지, 김재룡동지, 이일환동지, 정경택동지, 김성남동지, 신영일동지, 이희용

동지, 주창일동지, 조춘룡동지, 안금철동지, 김정관동지, 김승두동지, 최선희동지, 노광철동지, 김성기동지, 김덕훈동지, 박정근동지가 선거되었으며 후보위원으로 김여정동지, 박광웅동지, 한광상동지, 주철규동지, 전현철동지, 박훈동지, 이철만동지, 이영길동지, 이창대동지, 방두섭동지, 김철원동지가 선거되었다.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였다.

김재룡동지, 이일환동지, 정경택동지, 김성남동지, 신영일동지, 이희용동지, 주창일동지, 조춘룡동지, 안금철동지, 김정관동지, 김승두동지가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선거하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경택동지, 위원으로 조춘룡동지, 노광철동지, 김성기동지, 이영길동지, 방두섭동지, 최춘길동지, 김정식동지, 유광우동지, 이창호동지가 선거되었다.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하였다.

회의는 당의 정치적영도실현에서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되는 당내기구사업에 대하여 토의하고 해당 결정서를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부장들과 도당책임비서들을 임명하였다.

인민군대 주요직제 지휘성원들을 임명하였다.

회의는 당 제9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2026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의하고 당대회기간에 진행되는 새 5개년계획수립을 위한 부문별 연구 및 협의회에서 올해 계획을 반영한 결정서초안을 함께 연구하고 의견들을 종합하여 새로 선거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심의에 제기하기로 하였다.

전원회의는 당중앙위원회 구호집과 당규약해설집을 수정함에 관한 의정토의를 진행하고 해당 초안들을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연구하고 정치국이 심의하여 전당에 내려보내기로 하였다.

전원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구성과 관련한 간부내신안을 심의결정하고 새 임기의 최고인민회의에 제의하기로 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당역사의 한 구간으로 될 새로운 5년을 마주하고있는 지금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사명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비상한 책임성과 적극성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지도기관 성원들은 높은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지니고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무수행에 일심전력하여 당원들과 인민들의 두터운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 전망계획기간에도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조건과 환경은 순탄치 않을것이지만 우리는 전략적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주동에 서서 더 긴장되고 각성된 분발과 분투로써 당과 국가의 힘을 뚜렷이 자래우고 인민들에게 보다 큰 복리를 안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상정토의된 의정들과 해당 결정내용들이 본 대회에 보고되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의 시점에서 지나온 5년간의 투쟁정형을 종합 분석한것은 건인불발하여 이루어낸 결실들에 대한 마땅한 자부와 함께 앞으로 더욱 견지하고 발양시켜야 할 귀중한 경험들은 어떤것들이며 시정해야 할 편향들과 교훈들은 어떤것들인가를 분명히 새기고 모든 대표자들이 총결기간 사회주의건설과 당건설에서 일어난 변화들과 발전정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현재 자기 부문과 자기

단위가 어느 위치에 도달하였는가를 정확히 가늠할수 있게 한 유익한 계기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선거된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책임적인 영도적역할로써 충실히 보답할것이며 위대한 우리 국가의 발전을 다그치고 우리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많이, 더 빨리 차례지게 하는것으로써 자기 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을것이라고 언명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사회주의건설의 전 과정이 3대혁명으로 일관되어있고 3대혁명노선을 관철하는 투쟁속에서 전진하여왔다고 하시면서 전면적발전의 거창한 위업을 3대혁명수행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이 사업에 대중자신이 주인답게 참가할 때라야만 더 빨리, 더 실속있게 실현될수 있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전면적발전기를 개척한 지난 5년간의 투쟁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새로 시작되는 5년간의 투쟁도 역시 전적으로 우리의 주체적역량,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거할것이며 이면 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이념을 투쟁과 전진의 기치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갈것이라고 확인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어떤 도전도, 그 어떤 정세변화도 우리의 전진을 지체시킬수도, 막을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위업의 전도에 대한 자신심과 열정, 투지를 백배하면서 우리 인민의 이상과 숙망을 훌륭히 실현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전체 대표자들은 전당을 우리 국가의 줄기찬 융성번영과 사회주의의 창창한 미래를 당겨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전위대로 부르시는 총비서동지의 열화의 호소와 혁명의지로 충만된 결론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로 화답하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의 정확한 집행대책을 수립하여 대회결정서에 반영하기 위한 각 부문별 연구 및 협의회가 2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새로 선거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이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하였다.

모든 계획들이 실현가능성에 충분히 근거하고 개혁과 부흥의 토대를 구축하는데로 확고히 지향되도록 하는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의견들이 적극 제기되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정치국회의가 2월 2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 제9차대회 결정서초안수립을 위한 부문별 연구 및 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청취하고 연구하였다.

정치국은 수정보충된 결정서초안을 확정하고 당대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치국은 또한 2026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결정서초안을 심의하고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의 결정서로 채택하였다.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구호집초안과 당규약해설집초안을 심의하고 완성하였으며 전당에 내려보내기로 가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심의된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초안이 대회에 보고되었다.

결정서초안에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변혁단계에 진입하는 시대적요구에 부합되게 세워진 경제, 국방, 문화, 국가사회관리 등 제

반 분야의 보다 혁신적인 투쟁목표와 과업들이 반영되었다. 결정서초안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기간에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당 제8기기간에 구축된 발전도대들을 안정공고화하면서 점진적인 질적발전을 이룩하며 지방발전, 농촌문명창조를 확대, 가속화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있다.

또한 강력한 국가방위력건설과 국익수호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대외관계의 확대강화, 절대불변한 대적투쟁기조를 담보하기 위한 해당 부문들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사업계획들과 당건설과 당사업의 심화발전을 위한 참신하고 진취적인 목표와 방도들을 포괄하고있다.

대회는 부문별협의회들에서 대표자들의 폭넓고 심도있는 연구토의에 기초하여 수정보충된 결정서초안이 과학성과 현실성, 지향성과 동원성이 충분히 보장된 새로운 5년간의 투쟁목표로 된다고 인정하였다.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는 결정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사업총화보고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일치가결로 채택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제8기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와 해당 결정서는 당내본으로 출판되어 각급 당조직들에 배포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 폐회사를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본 대회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진척되고 세계정치정세가 심하게 격변하는 시기에 열린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되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수백만 당원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간고했던 지난 5년간의 위대한 투쟁을 성스러이 총화하는 대회장에 충성과 애국의 마음을 엮고 더 긴장된 창조투쟁, 노력투쟁을 벌리면서 당대회사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대표하여 상정된 의정들을 성과적으로 토의하는데서 하나같이 진지하고 적극적이며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여준 전체 대표자들에게 사의를 표하시고 일편단심 당을 충직하고 견결하게 받드는 특유의 기개로써 우리 당대회에 크나큰 고무와 힘을 실어주고 대회사업의 성과를 담보해준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이상사회로 가는 전진도상에서 반드시 경과해야 하는 심각한 개조투쟁, 변혁투쟁이 또다시 우리앞에 놓여있고 그것은 지금까지 해온것보다 더 아름답고 과격하고 거창한 계획들을 결행해야 하는 필수불가결의 투쟁이지만 우리가 갈길은 명백하며 승산은 확고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한마디로 전면적발전기를 개척한 투쟁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한단계 더 높은 결실로 이어나가자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대표자들과 전당의 당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드높은 혁명적기세와 과감한 투쟁에 의하여 대회가 제시한 노선과 정책, 결정들이 반드시 빛나게 관철되고 우리 당과 혁명발전,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역사적전환이 일어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며 폐회를 선언하시였다.

<인터뷰쇼날>이 주악되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 오늘의 부흥과 내일의 번영을 다같이 책임지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전성, 전면적국가부흥의 백년대계를 역세게 다져나가시는 탁월한 정치전략가이시며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위대

한 설계가이신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영도와 거룩한 혁명실록이 있기에 승리와 영광은 언제나 우리의것이라는 확신과 자신심으로 장내는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전체 대표자들은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화발전사에서 가장 중대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그 무조건적인 집행을 인민앞에 다짐한 방대한 혁명과업들의 무거운 짐을 엄숙히 되새기면서 당결정의 운명, 전면적국가부흥의 성패를 두어깨에 걸머진 당의 전위답게 맡겨진 책무이행에 전심분투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영도따라 자생자결의 불변한 원칙과 공세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전인민적대진군은 당대회를 가속적인 출발로 하여 지나온 5년간을 능가하는 국가번영의 금지높은 새 전기를 광활히 펼치게 될것이다.

간고한 투쟁의 위대한 총화, 새로운 여정의 시작으로 청사에 기록된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는 주체혁명의 한길에 언제나 백승의 자욱만을 새겨온 우리 당의 탁월한 영도력과 절대적권위를 과시한 정치적사변으로, 강대하고 문명한 사회주의건설의 빛나는 영봉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전투적기치로 불멸할것이다.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2026.3.1

동지들!

나라의 자랑이고 힘이며 가장 혁명적인 역량인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의 미더운 노동계급과 일군들!

당 제9차대회를 성과적으로 마치고 또다시 새로운 투쟁을 마주하고 보니 제일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고 대회장간내내 지난 5년간의 투쟁과정을 돌이켜보면서 마음속으로 특별한 감사를 꼭 전하고싶었던 상원의 노동계급, 바로 동지들생각이 나서 당대회이후 이 기업소를 제일먼저 찾아왔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그 5년세월 변함없는 한본새로 우리 당의 과감한 선택을 충실히 만들어주고 그의 실행에 크게 공헌한 고마운 동지들의 소행은 온 나라에 널리 소개되어야 하며 모두의 경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전례없는 고조와 변혁으로 지나온 5년 역사의 매 갈피들에 새겨진 위대한 기록들마다에는 상원노동계급의 무한한 헌신과 성실한 노력이 역력히 고여져있으며 이에 대하여 온 나라가 깊이있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상원세멘트가 좋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상원노동계급의 수고를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지들!

바로 이 시각의 정열적이고 전투적인 동무들의 모습만 보아도 혁명의 기본역량이고 힘이 있는 노동계급의 충천한 기세를 느낄수가 있습니다.

나는 먼저 조업의 첫걸음부터 오늘까지 오직 충성과 애국의 경이적인 기록만을 아로새겨온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의 발전사에 경의를 드리며 기업소의 전체 노동계급에게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나라에 크고 중요한 기업소들이 많지만 우리 상원처럼 건설하고 전투력이 강한 노동계급의 집단은 없습니다.

말이나 결의가 아니라 철두철미 생산실적으로, 증산투쟁으로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무슨 일이나 못해내것이 없는 힘있는 기업소,

이것이 40여년에 걸친 상원의 연혁을 관통해온 영예로운 명함입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8기기간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는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인 발전과 전반적양양을 위한 당의 구상을 세멘트생산실적으로 굳건히 담보하였으며 자체의 생산능력확장과 부단한 증산으로써 조업이래의 최전성기를 개척하였습니다.

사실 격동의 지난 5년간 연년이 온 나라를 들끓인 사변적순간들은 모두 상원과 잇닿아있습니다.

5개년계획수행의 마지막해인 지난 2025년에 상원의 노동계급은 당의 전투적인 호소를 높이 받들고 증산의 봉화를 추켜들어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 거세찬 활력을 복돋아주었으며 당에서 제시한 투쟁과업들이 긍지높이 총화될수 있게 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수도과 지방의 개벽을 안아온 대건설의 벽찬 성과들과 인민들에게 더 큰 복리를 주고 새시대의 문명으로 안내하는 무수한 창조물들에 바쳐진 소중한 모든것들중에 제일 무겁게 안아보게 되는것이 바로 상원노동계급의 남다른 수고입니다.

전국도처에 전개된 창조와 건설의 전역들에서 상원은 언제나 후방이 아니라 전초에 있었으며 그 역할은 보장자의 사명을 초월한 전위대로서의 활약이었습니다.

10년전까지만 해도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세멘트생산량을 당 제8차대회를 기점으로 최대생산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단계로 끌어올리고 연년이 최고생산연도 기록을 계속 갱신하면서 우리 투쟁의 걸음걸음에 확신을 더해주고 것처럼 방대한 사업들이 성공할 가능성을 만들어낸 상원의 투쟁공적은 영웅적이라고밖에 달리 칭할수 없습니다.

상원노동계급이 역척같이 받쳐주었기에 우리 당이 세기적변혁을 목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고 확대해나갈수 있었고 건설영역에서 이룩된 기적들과 더불어 한해가 다르게 충실해지는 혁명의 열매들을 기대할수 있었습니다.

동지들!

상원의 정신, 상원의 방식, 상원의 전통에는 우리 발전의 비결이 있습니다.

당과 조국을 받드는 무한한 충성심, 한계를 부정하는 과감한 혁신과 일관한 과학기술중시, 이것이 상원이 비약하는 비결이고 우리 노동계급의 증산과 우리 시대 발전의 공식입니다.

상원의 노동계급은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했던 그 마지막한계점에서도 비상한 정신력과 과학의 힘에 의거하여 증산의 새로운 출구를 열어놓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생산과제, 증산과제가 시달될 때 그 수자에서 또 하나의 거창한 변혁을 구상하고 준비하는 당의 결심을 읽을줄 아는 충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였고 조국과 혁명의 요구라면 어떤 아름답것이라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그리고 반드시 해내는 불굴의 창조자들이 상원의 노동계급이었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상원의 공기는 언제나 청신하고 전투력과 실력에서 상원을 따를 기업소가 없는것입니다.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의 전체 노동계급과 일군들이 그 언제나 당에서 주는 임무를 완벽하게 해제킬수 있게 사상정신적으로나 기술실무적으로 계속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관철해나가고있는것은 당과 국가를 받드는데서 가장 순결하고 열렬한 충의심의 발현입니다.

나는 이곳 노동계급이 증산을 쫓기해나서고 그 열기가 온 나라에 파급되어 새로운 혁신의 연속적인 고조로 거세게 승화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훌륭한 노동계급이 있구나 하는 자긍심으로 마음

이 후터워지곤 하였습니다.

시대의 영예높은 전형으로서, 귀중한 본보기로서 나라의 만아들구실을 스스로 맡아나서서 당과 혁명을 보위하고 우리 위업의 전진을 떠메고나가는 그 역센 기상과 분발력은 우리 당에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고있습니다.

나는 줄기찬 양양과 혁신으로 우리 조국의 위대한 영예를 받들어올리며 조선노동계급의 힘과 사회주의의 전진기상을 과시하고있는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의 전체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간고한 투쟁의 위대한 총화와 더불어 보다 큰 이상과 포부로 보다 새로운 발전을 목표로하고 보다 큰 보폭으로 걸음을 뗀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은 사회주의건설의 주력인 우리 노동계급에게 더욱 배가된 중대한 사명을 부여하고있습니다.

우리앞에는 조국의 부흥과 변명을 위하여, 우리 인민의 행복과 후대들의 미래를 위하여 해야 할 더 크고 더 어려운 일감들이 산적되어있으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의 선구자적지위와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견인불발하는 조선인민의 정신을 대표하고 불가능을 모르고 부단히 변혁하며 전진하는 우리 국가의 잠재력이 응축된 이곳에서 오늘 나는 새 단계 우리 혁명의 승리적인 완결을 굳게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의 결정적인 담보로 되는 투쟁의 강력한 동력은 확실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상원의 충천한 애국열의와 증산기세는 우리 당의 사상과 위업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도, 온 나라를 영웅적투쟁으로 부르는 봉화로 될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상원의 생산실적을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지표로서 대단히 중시하고있으며 상원이 굳건히 받쳐주는만큼, 상원이 더 크게 일어서는만큼 우리 투쟁은 거대한 활력을 배가할것입니다.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노동계급과 일군들!

그 언제나 우리 당에 큰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준 상원의 영예로운 역사와 전통을 계속 힘차게 이어나가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모두 사랑하는 조국에 무궁한 영광을 드리고 인민의 숙원을 성취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에서 조선사람의 강毅한 정신력과 슬기를 남김없이 펼쳐나갑시다.

나는 상원의 노동계급이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해 언제나와 같이 나와 뜻을 같이해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동무들의 헌신과 노력에 떠받들려 분명코 이 나라는 또다시 매일매일 기운찬 변천으로 달력을 번지며 앞으로 나가게 될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상원의 노동계급에게 다시한번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역할과 수고를 부탁하면서 모두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는바입니다.

영웅적인 우리 노동계급의 모든것을 체현한 자랑스러운 이곳 기업소의 성스러운 투쟁행로에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지들!

위대한 우리 조국을 위해 다시한번 산악같이 일떠서서 앞으로 또 앞으로 힘차게 투쟁해나가갑시다.